# 기호유학의 특질:호락(湖洛)논변을 중심으로 -율·우벽립(壁立)과 종지(宗旨)에 대한 지수와 변통-

## 곽 신 환(숭실대 명예교수)

- I . 드는 말
- Ⅱ. 율·우벽립(壁立)-그 종지(宗旨)의 견지 가. 율곡의 인심도심도설과 성의론 나. 우옹의 심시기론과 '대의'사업
- Ⅲ. 송시열과 김상헌의 만남
- Ⅳ. 권상하 문인과 김창협 문하의 논변
- V. 주변의 비판적 평가
- VI. 나는 말-율·우의 정심(精審)한 이론과 전일(專一)한 실천의 지향

## I. 드는 말

기호(畿湖)는 어디를 말하는가? 이 용어가 왕조실록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인조 때이다.1) 그리고 그 의미는 행정적인 의미에서 경기도와 충청도를 가리킨다. 호남이나 황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1908년 기호흥학회<sup>2)</sup>라는 단체가 설립되어 운영된 일이 있는데, 이 학회는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학문은 학자 중심으로 논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 현상이고 지역은 그 이해를 위한 보조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노매디즘이 성행하고 지구 촌을 거주지로 표방하는 시대이니 특정지역에 묶으려는 듯한 인상은 그리 달가 와하지 않는 것 같다.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주도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의 주요 근거지를 그 학문 앞에 붙이는 것이 이상할 것 없다. 행정적 용어로는 서울과 경기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실 서울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서울이고 이러저러한 연고로 서울에 나름의 근거를

<sup>1) 『</sup>인조실록』 5년 정묘(1627) 4월 1일. 「명나라에 청과 화친하기까지의 사정을 아뢰다」에서 처음 나온다. 이후에 사용한 것도 모두 경기와 충청지역을 가리킨다. 기호 해서 양남 등으로 병열 로 쓰인 것에서 호남이나 황해도는 기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sup>2)</sup> 畿湖興學會; 1908년 1월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애국계몽단체. 대한자강회가 해체된 후 학교설립 등 교육진흥사업의 체계있는 지역적 추진을 위해 설립됨. 회칙에서 "본회는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에 흥학하기로 목적함(제2조). 전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학업을 권장하며 회보를 간행하여 일 반인사에게 지식을 주입하며,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 각 군에 교육을 발전하게 함(제3조)."이라 함

마련하고 있다. 평생 서울에 산 학자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굳이 분류한다면 기호학자에 넣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도 문법보다는 화용(話用)이 중요하다. 또한 기호유학이라고 할 때 그 종장의 위치에 율곡 우계 사계 우암을 두는 것이 일반이므로 이들의 학문을 조술하거나 이들의 문하에 출입한 경우, 곧 이들을 연원으로 한다면 포함시켜 논의해도 별 문제제기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은 호락논변을 중심으로 기호유학의 특질을 모색한다. 호락이 이미 충청 과 서울 경기를 의미하니 호락논변은 호기논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논변에 참여 한 인물은 모두 기호지역에 그 학문적 삶의 토대를 두고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진영이 구별되는 데서 생긴 용어이다. 주지하듯 호학의 주요인물로 권상하 한원 진 윤봉구를 꼽고, 낙학의 인물로는 김창협 이간 이재 김원행를 든다. 황윤석(黃 「기호락이학시말(記湖洛二學始末」4)이나 胤錫1729-1791)3)의 (1809-1890)5)의 「호학원류(湖洛源流)」 의 서문과 총목에 등장하는 인물들 도 모두 서울 경기 충청권의 인물들이다. 박성양이 총목(總目)에서 들고 있는 학 자들은 하워진, 유봉구, 채지홋, 최징후, 이간, 현상벽, 유혼, 한홍조의 이른바 강 문8학사와 이어서 낙하와 한워진의 문인 등으로 이재, 박필주, 민우수, 김원행, 김이안, 송명흠, 송능상, 권진응, 임성주, 김양행, 송환기, 김정묵, 박윤원을 포함 한 모두 21명이다. 『동유학안(東儒學案)』 을 만든 하겸진(河謙鎭 1870-1946)6)은 '호락학파학안'에로 권상하 김창협 이간 한원진 김정묵 기정진 을 들었다. '보유편'에 누락된 학자들의 이름이 들어있다. 호락학파로 분류해야 하는 이간 윤봉구 김원행 임성주 등을 어느 학파에 소속시키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이다.7) 이항로 임헌회 김평묵 전우 등을 보유에 넣은 것은 그와 거의 동시 대 학인이기에 아직 평가가 이르다고 보았거나 그의 인식 틀 안에 들지 못한 것 이 이유일 것이다. 이들 집단에 어떤 의미 있는 특질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역사적 환경적 요인인가? 아니면 종주적 인물과 그 학맥의 특징인가?

호락논변의 주제 등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량과 수준의 연구가 축적이 되었

<sup>3)</sup> 황윤석(黃胤錫)의 자는 永叟, 호는 頤齋·西溟散人·雲浦主人·越松外史이며 김원행의 문인이다. 그의학문은 실학시대의 학풍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것인데, 처음에는 理學의 공부에 힘쓰고 『주역』을 비롯한 경서의 연구도 하였으나, 북경을 거쳐서 전래된 서구의 지식을 받아 이를 소개한 공이 크고, 또 종래의 이학과 서구의 새 지식과의 조화를 시도한 점이 특색이다. 『頤齋遺稿』·『頤齋讀稿』·『恋知錄』이 있다.

<sup>4)</sup> 황윤석 『頤齋亂藁』 권26 무술년 7월 27일

<sup>5)</sup> 朴性陽의 자는 季善, 호는 芸窓. 李趾秀의 문인이다. 宋近洙의 천거로 1880년에 繕工監監役에 임명되고, 이어 사헌부지평·호조참의·동부승지·호조참판·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저편서로는 『芸窓文集』 15권을 비롯하여 『理學通攷』·『湖洛源流』·『家禮增解補遺』·『居喪雜儀』·『續通鑑』·『國朝記異』 등이 있다.

<sup>6)</sup> 하겸진의 『東儒學案』은 학파의 연원과 학설을 기술한 책. 30권 3책. 1970년 이일해에 의해 간행되었다. 곽종석의 문인이고 이승희·장석영·송준필 등과 교유했다. 『朱語節要』 10권을 편찬했고, 『도문작해』 6권 및 『明史綱目』 18권을 저작하였다. 만년에는 『東詩話』를 엮었고 전우 「性師心弟論」에 대해 2편의 辨과 심성론인 「心爲字母說」 5편을 지었다.

<sup>7)</sup> 하겸진은 호락학파안에 앞서 '담파학안'과 '담파문인사숙학안'이라는 분류를 두고 그 안에 이이 성 혼 그리고 그 문하생으로 김장생 조헌 김집 송준길 송시열 유계 윤선거 박세채 윤증 등을 거론하였다. 담파는 석담과 파주를 가리키는 말로 율곡과 우계를 그렇게 묶은 것이다.

다. 홍정근은 직접 연구에도 참여하였지만 그간의 연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호락논변의 전개와 현대적 가치』(학고방, 2021)를 출간했다. 이는 그 내용에서 호론과 낙론의 형성과 논변 지형도, 호락논변 초기의 인물성동이 대립, 호락논변 초기의 미발심성 대립, 논변 초기 대표학자를 통해서 본 호락논변, 호론과 낙론의 절충론 등장 19세기 실학과 호락논변 영향, 20세기 주자학자 이철 영의 새로운 호락논변설, 호락논변 논쟁점, 호락논변의 현대적 가치 등을 수록하고 있다. 매우 포괄적으로 제 문제를 접근했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국사학자 이경구는 『조선, 철학의 왕국』(푸른역사, 2018)이라는 제목으로 호락논쟁 전반을 철학 외의 다른 변수들까지 고려하는 연구물을 출간하였다. 그는 논쟁의 시작과 관련된 인물인 송시열 권상하 이간 한원진 김창협 이재 등을 사건 논변중심으로 다루었고, 논쟁의 주제를 미발, 인성과 물성, 성인과 범인으로 나누었으며, 학파의 형성을 환국과 탕평과 만남과 논쟁으로 나누어 논하고 그 빛과 그늘, 안팎의 변화의 바람 등을 다루었는데 스토리텔링과 같은 분위기의 가독성 높고 여러 요인들의 작동을 잘 그려내었다.

문석윤은 『湖洛論爭: 形成과 展開』(동과서, 2006)라는 책에서 호락논쟁의 배경에서 사대부적 자아의 정립, 경향의 분기의 관점에서 호락논쟁에 접근하였고, 기본 개념들을 본체, 理一分殊, 理通氣局, 본성[性]과 본체, 마음[心], 쟁점들의 형성, 상호간의 쟁변양상 등을 상세히 정밀하게 또 광대하게 다루었다.

## Ⅱ. 율·우벽립(壁立)과 그 종지(宗旨)의 견지

호란 후의 조선 학계에서는 정통과 종사의 의식이 강화되었다. 대의정국이 조성되었고 정학(正學)을 높이고 사설(邪說)을 종식시키자는 기치가 높았다. 이런 분위기는 자연 사문난적 의식을 고양시켰으며 이와 연결되어 문하나 스승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었다. 우암과 명재의 사이, 유중교와 김평묵의 갈등, 퇴계학과한주학의 갈등이 세간에 거론되고 신론(新論)기이(奇異)의 학설이 사문(斯文)과 사문(師門)의 난적으로 지목되는 일이 허다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외환이 없는 시기로서 상대적 평화의 시기였다. 이른바 영정조 문예부흥기에 해당한다. 이 문예부흥기의 유학이 일면 예학이었고 다른 일면 호락논쟁이었다.

전우는 1903년 「율우종지(栗尤宗旨)」」라는 글을 지었다. 이기와 심성에 대한 이이와 우암의 학설을 인용하여 기정진과 이항로의 주장을 반박한 짧은 글이다.

"기는 반드시 맑아진 다음에 밝아지니 기는 마땅히 다스림의 목표이다. 마음은 반드시 붙든 다음에 보존이 되니 마음은 리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는 율옹(栗翁)이 이른바 성현은 다만

그 기를 검속하여 그 본연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요, 유문에서의 '존덕성(尊德性)'의 도가 되었다. 우로(尤老)는 이른바 불교는 그 이치에 맞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오직 마음이 내는 것으로 삼으니》이는 심에 근본을 두는 이단의 오류를 폄훼하는 까닭이다. 만약 노사와 같이 기가 원래 뚜렷이 드러난 것이고 명기의 노력이 없어도 된다면 이는성의 발현이다. 나는 때때로 강약의 세에 구애되어 도체가 밝아지지 못할까 두렵다. 이항로와 같이 심이 태극이고 주재자라고 하여 들어 올려 물의 리를 명하는 것이 된다면10) 이는마음의 사려이다. 나는 그것이 다시 이의(理義)의 바름에 근본을 두지 않고 덕성이 그 존귀함을 잃을 것을 안다."11)

전우가 쓴 「율우종지」는 기정진과 이항로의 주장을 겨냥한 글이다. 율곡과 우암의 후학들이 스승의 종지로 내세우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다. 그러나 그 때 그 때 대두하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그들은 늘 스승의 종지를 의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답을 찾곤 하였다. 대체로 그들은 율곡에게서 이기(理氣)를 우암에게서 의리(義理)를 표방하곤 하였다. 12) 율·우 벽립(壁立), 율곡 우암 두 사람은 만 길절벽이 온갖 풍상에도 변하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듯 험난한 세파에 시달려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여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한 기상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의 18-19세기는 문호(門戶)와 존사(尊師)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서원과 사우가 도처에 세워졌고 그곳에 배향하는 문제가 자못 학인과 당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쟁론거리가 되곤 하였더, 각신 김근순은 정조와 나눈 대화에서 "앞 다투어 여풍(餘風)을 계승하여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그 뜻을 어기겠는가.'라고 하며, 의리의 밖에다가 또 일종의 의리를 덧붙여서 이를 가계 (家計)로 삼아 당론과 같이 여깁니다. 비록 도리에 십분 타당한 것이라 해도 이러한 뜻 자체가 이미 좋지 않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13) 배사

<sup>8) 『</sup>율곡전서』 권10,書 二,答成浩原"聖賢之千言萬言.只使人檢束其氣.使復其氣之本然而已.氣之本然者.浩然之氣也.浩然之氣.充塞天地.則本善之理.無少掩蔽.此孟子養氣之論.所以有功於聖門也"

<sup>9) 『</sup>송자대전』 권49 書,與李季周 戊午七月九日"朱先生嘗曰.聖人本天.釋氏本心.蓋本天.故動靜語 嘿.一出於天理之公.本心.故以運水搬柴爲道.而不問其當運與不當運.當搬與不當搬.而惟心之所出.此儒釋之所以分.釋氏初亦豈有私心哉.非但釋氏.程門高弟如楊龜山.不知蔡京之姦.胡文定不知秦檜之惡.此二子其處心行事.光明正大.而乃有此誤者.此窮理之功.有所未盡而然.故大學爲聖學之大規模.而必以格致爲先"

<sup>10) 『</sup>華西集』 附錄 过3, 語錄, 金平默錄三"心統性情. 太極含陰陽. 心是太極. 性是陰靜. 情是陽動. 心統性情. 譬如指統屈伸. 脚統行止. 門扉統闔闢".

<sup>11) 『</sup>艮齋集前編』 刊15,雜著,栗尤宗旨 癸卯"氣必待澄而後明.則氣之當治的矣.心必待操而後存.則心之非理明矣.此栗翁所謂聖賢只要人撿束其氣而使復其本然者.所以爲儒門尊性之道也.尤老所謂釋氏不問其當理與否而惟心之所出者.所以砭異端本心之誤也.若如蘆集.而謂氣是元來顯著底.不必用明氣之功.則性之發見也.吾懼夫有時拘於強弱之勢而道體不得明矣.如華雅.而謂心是太極主宰者.擡之爲命物之理.則心之思慮也.吾知其不復本於理義之正而德性失其尊矣"

<sup>12)</sup> 이는 『오현수언』의 서문에 보인다.

<sup>13) 『</sup>홍재전서』 권120, 鄒書春記 1 閣臣 金近淳 告子篇,告子章,生之謂性章,"人物性之同異.此近世湖洛之說所以紛然而莫之一者也.臣家則已有先祖定論.故嘗以湖說爲非.伏未知大聖人淵衷涇渭之辨.彼此何居.義理自是公物.無古今無彼我.惟是之求而已.近來則道學不明.習俗隨痼.非是之求.惟務勝之是求.自是己見.競承餘風曰.吾師云爾.曷敢越厥義理之外.又添却一副常義理.把作家計.便若堂

(背師)와 학맥의 이탈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학술에 있어서 스승의 종지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대한 문하들끼리의 논쟁도 치열하였다.

호락은 무엇 때문에 그런 가열찬 논변이 전개되었는지 그것과의 율우의 종지 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가. 율곡의 만년 정론- 인심도심도설과 성의(誠意)론

선조의 각별한 신임이 있었던 1582년은 이이의 생애 중에서 가장 성취감이 있던 시기였다. 이때 선조는 그에게 「인심도심도설」을 제진하라는 명을 내렸다.<sup>14)</sup> 여기에는 당시 학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을 이이를 통하여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을 수 있다.

인심도심에 관심을 갖고 연구 또는 논변을 전개한 학자는 상당하다. 기사제목에 한정하여 꼽아도 한국문집총간에 70개가 있고, 「인심도심도」는 18개 이상이 보인다. 사적인 편지나 이기론 또는 사칠론을 다룬 글 속에도 또 잡저 속에도 내용이 들어 있다. 주고받은 서간에서의 논변이 많다. 그 첫 번째 논변은 이항(1499-1576)과 노수신(1515-1590)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항은 노수신이 나흠 순의 인심도심 체용론을 수용하자 이를 혹독히 비판하였다. 15) 이어진 논변이 이황(1501-1570)과 기대승(1527-1572) 그리고 이이(1536-1584)와 성혼(1535-1598) 사이의 논변이다. 이후에 벌어진 논변은 주로 이황과 이이의 주장에서 그 논리적 정합성을 다룬 것이 많다. 옹호와 비판이 학문적 엄숙성과 엄밀성을 넘어서거나 벗어난 경우도 많다.

이이의 「인심도심도설」은 그의 철학적 저술로서는 가장 늦은 시기의 작품이다. 왕명에 따라서 제진하였으니 보편적 설득력을 염두에 둔, 가장 집중력을 보인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학자 아닌 통치자 왕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왕도실현을 위한 관건인 '군주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格君心]'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왕명에 의하여 널리 간행 반포될 것과 학술적 정치적 도전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찬술하였을 것이다. 「도설」은 인심, 도심의 뜻과 이치에 대한 996자에 이르는 해설과 한 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다.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이는 먼저 '성과 기를 합하여 한 몸의 주재가 되는 것을 심이라고 한다[合性與氣而爲主宰於一身者, 謂之心]'라고 하여 심·성·정의 개념과 그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유의 견해를 취한 것이지만 그 나름

論.雖使道理十分是當.此意已先不好.誠可慨也.顧今師道在上.萬理森羅.於是焉闡性命之微眇.明大本之無差.劈靈臺之駁濁.開天下之爲善.辨聚訟之爭端.垂不易之定論.正一代之趨向.爲萬世之準則.臣愚區區竊伏有竢於今時耳"

<sup>14)</sup> 김장생의 「율곡행장」에 의하면 이때 선조는 善惡幾圖, 金時習傳 및 學校規範도 제진을 명했다.

<sup>15)</sup> 곽신환 「일재(一齋)와 소재(穌齋)의 인심도심 논변」 『일재 이항과 호남사상』 정읍학연구회편 문예원 2018년 1월 pp85-126

의 다소 변용된 표현도 들어있다. 심에 대한 이이의 이 규정은 훗날 그의 심론의 주요 논거로 인용되거나 논란의 소재가 되곤 하였다. 현상벽은 율곡의 이 구절을 이 편에 나오는 이(理)와 가(氣)자의 장본(張本)이라고 하였다.16) 이재는 마음은 기이고 기에는 청탁수박의 차이가 있으니 마음이란 것은 성인과 범인에 차이가 없을 수 없고, 마음은 참으로 기이지만 반드시 성과 기를 합하여 말해야만 그 뜻이 갖추어진다고 하였다.17)

왕백(王柏)<sup>18)</sup>이 처음으로 그린 「인심도심도」는 『심경부주』 권1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나름의 도를 제작하고 설을 지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인심도심의 도설을 제작한 한 것은 노수신으로 보인다.<sup>19)</sup> 이어서 나온 것이 이이의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도 정만양형제송시열 조익 김순거 윤대순 김만영 김정묵 박태한 곽종석 전우 등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인심도심도」를 제작하였다.<sup>20)</sup> 「인심도심도」를 새로 제작하였다는 것은 보완과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이의 「인심도심설」에 대한 주요 후학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우암(1607-1689)은 "인심도심은 율곡의 주장이 한결같이 주자의 뜻을 따른 것으로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다"<sup>21)</sup>고 하였다. 읽는 자들에게 집착과 편견의 병통이 있음을 몰라서는 안된다고 하였다.<sup>22)</sup>

조익(1579-1655)은 이이의 "人心道心,皆發於性"이라는 말은 주자의 혹원(或原) 혹생(或生)과는 다르지만 주자는 그 고류(泒流)를 이었고, 이이는 그 원본(源本)을 구명한 것이어서 주자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달라진 것이며, 그가 도리의 원두(源頭)를 본 것이 투철함을 알 수 있고 구구하게 앞 사람의 말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곧장 가슴속에 깨달은 바를 내놓아 전현이 드러내지 못한 것을 밝혔다고 하였다.<sup>23)</sup>

오도일(吳道一 1645-1703)24)은 "역대로 「인심도심설」이 많지만 그 가운데

<sup>16)</sup> 현상병 『冠峯遺稿』 권2,書,答李公擧別紙 丁酉 "謹按圖說,合性與氣而爲主宰於一身者,謂之心者,此實一篇理氣字張本也. 高明所謂其下五箇理五箇氣字,皆承一初理氣一串穿來者,誠是誠是,愚何間然"

<sup>17)</sup> 이 제 『陶菴集』 권14, 書[六], 答沈信甫問目"鄙說則自謂煞有商量, <u>合性與氣云云, 必如是而後, 其</u> <u>義乃備,</u>至於單指以下與其細註, 如論性之本然氣質者, 亦未嘗不分言, 而盛敎則於此一段, 似若有未及 細繹者矣.

<sup>18)</sup> 王柏(1197-1274)의 자는 會之이다. 호는 鲁齋이다.

<sup>19)</sup> 노수신 『穌齋先生內集』 下篇 懼塞錄甲二, 人心道心辨

<sup>20)</sup> 한국문집총간에서 18개의 각양의 「인심도심도」를 볼 수 있다.

<sup>21) 『</sup>송자대전』 전90, 答李汝九庚戌二月十日"至於栗翁之說,一遵朱子意,更無可疑.其曰道心,節制者,正釋爲主之意也.不能節制,則烏在其爲主也"

<sup>22) 『</sup>舍자대전』 권104, 答金直卿 丙辰"此之心器也. 性器中之水也. 情是此水之瀉出者也. 此水之瀉出, 即此器之傾瀉也. 故謂之水之瀉出可也. 謂之器之瀉出亦可也. 故朱先生嘗以性發心發, 分爲情意, 而又 嘗曰心所發爲情, 見語類第五卷 此等處須不可不細分, 亦不可不活看, 故朱先生嘗以執著偏見, 爲讀書之病, 此不可不知也"

<sup>23)</sup> 趙翼 『浦渚文集』 "人心道心,皆發於性,與朱子或原或生之說不同,然朱子之說,乃紹其泒流,先生之論,乃究其源本,非反於朱子也.各有所指,故不同也.於此見先生見道理源頭透徹,不拘拘於前言,而直出胸中所自得,發前賢所未發也.

서 가장 친절 간요(簡要), 평이, 명백하여 위로 전성(前聖)의 묘지(妙旨)를 직접 깨닫고 아래로 후학의 몽매 누졸함에 밝게 제시한 것으로 율곡선생이 지은 것만 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25)</sup>

권상하(1641-1721)는 정자와 주자의 인심론도 초년과 만년에 다름이 있었다고 하고, 이이의 「인심도심설」은 바로 만년의 정론이니 마땅히 이것을 정론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sup>26)</sup>

이간(李柬 1677-1727)은 이이의 「인심도심도설」이 문자 혈맥에 지극히 조리가 있지만 한두 군데 의심이 없을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하였다. 그가 제기하는 의문은 세 가지 곧 '형기에 가리면 인심이 된다는 것', '인심도심이 서로 종시가된다는 것', '감동한 것이 형기'이다 라고 한 이 셋은 참으로 의심이 없을 수 없다고 한다.<sup>27)</sup>

한원진(1682-1751)은 이이의 「심성정도설(心性情圖說)」, 「인심도심도설 (人心道心圖說)」은 지극히 명비(明備)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8)</sup>

윤봉구(1683-1767)는 「인심도심도설」에 나온 내용이 명백쇄락하고, 성혼과의 논의에서 나온 것을 버렸으며, 정론이라고 하였다.<sup>29)</sup> 또한 여기서 논한 것은 인심도심 뿐만 아니라 이기심성 사단칠정 미발이발 등도 논하여 모두 하나같이꼭 들어맞고 정당하고 성경의 언어에 맞으며 조금도 틀림이 없으니 이이의 의리의 두뇌가 여기 있다고 하였다.<sup>30)</sup>

이들은 이이의 「인심도심설」이 궁극적으로 자수설(自修說), 그것도 왕도구현을 위한 것, 성학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의식을 견지했고, 따라서이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그의 경장 개혁론에서보이는 것과도 결을 같이 한다. 당시를 경장의 때라고 파악하여 「만언소」를 비

<sup>24)</sup> 吳道一은 자는 貫之, 호는 西坡.

<sup>25) 『</sup>西坡集』 刊19, 跋, 附題後,人心道心圖障跋"人心道心之說,發於堯舜禹授受之際,而逮孔孟程朱,始大著焉,然猶未有形之於圖者也. 自王魯齋,程林隱二氏者出,所謂心學圖者始作,而洎我國朝以來,諸儒之踵而爲之者,比比有焉,率皆依樣傅會,煩碎繆戾,或以理氣爲互發而昧於本原者有之,或以四七爲異實而失其名義者有之,而若其親切簡要平易明白,上可以直契前聖之妙旨,下可以昭示後學之朦陋者,則其惟我栗谷李先生之所作乎"

<sup>26) 『</sup>寒水齋集』 권10, 答李仲謙 癸巳六月 "程朱人心之論, 亦有初晚之異, 栗谷人心道心說, 是晚年定論, 當以此爲正",

<sup>27)『</sup>巍巖遺稿』 刊7,與玄彦明 丙申"先生圖說,文字血脉,極有條理…然區區竊聞尤庵先生之言,則以 爲栗翁文字,都無可疑,而只一兩處,不能無疑云,區區盖嘗三復而致思矣.先生理氣說話,眞是都無可 疑,而惟其以揜於形氣者作人心,及人道相爲始終,與此感動者形氣 凡三言,眞不能無疑耳"

<sup>28) 『</sup>南塘集』 권29, 雜著, 心純善辨證 示權亨叔. 癸亥"此外又有心性情圖說, 人心道心圖說, 極爲明備而此不盡錄"

<sup>29) 『</sup>屛溪集』 刊27,答姜代予"所示栗翁論人心道心書屢條疑義謹悉之,義理言議初晚之或異,雖程朱大臂,猶不能免焉,程子人心人欲之說,朱子亦承用之,栗翁之以人心始歸之不善邊者,顧何異也.朱子雖有此語,至於庸序上智不能無人心之云,頓改前見,則初秊之誤,無損於晚秊之定論,栗翁奉敎製進人心道心圖說數百言,明白灑落,全棄長書中初說,今此圖說,卽朱子之庸序也.當以此爲定論"

<sup>30) 『</sup>屏溪集』 권27,書,答姜代予"且此說所論,非但人心道心而已.理氣心性,四端七情,未發已發,皆所該論而一皆恰恰亭當,準之於聖經言語,無一毫差間. 栗翁義理頭腦,惟於此說可詳耳. 最是形氣之氣屬之口體者,與庸序人莫不有是形,雖上智不能無人心者,其義前後一揆"

롯하여 무수히 절박한 상소를 올렸던 이이로서 「인심도심설」의 제진은 앞서의 『성학집요』 제진에 못잖은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애초에 인심과 도심은 정(情)과 의(意)를 通하여 말한 것<sup>31)</sup>으로 보았기 때문에 의지(意志)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기가 용사함을 알고 이를 정밀하게 살피는 것과 살피지 않는 것은 모두 의가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닦는 공부는 성의(誠意)보다 우선할 것이 없다<sup>32)</sup>는 그의 말에 후학들은 보다 허심(虛心)평기(平氣)의 자세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이는 후학들의 인격에 스며들었다.

# 나. 우암의 '심시기(心是氣)'와 '대의(大義)'사업

우암은 주자의 이론을 옳게 이해한 사람은 율곡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는 지수(持守)할 것은 지수하고 변통할 것은 변통하여 받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17세기 조선의 상황에서 그는 주자의 사업을 그대로 적용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율곡의 경세사상과 경장 개혁의 이론 또한 그의 사업에서 실제적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국가의 시의(時宜)와 만고의 통의(通義)를 밝히고 이를 부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폐를 변통하기 위한 노력으로 거칠게 밀려오는 심신의 위난(危難)을 무릅썼다. 여기에는 『석담일기』라는 율곡의 의발을 전수한 데서 오는 정통성의 맥락이 있다. 왜냐하면 『석담일기』에는 『춘추』적 사법의 엄정성과 더불어 경세 시폐 개혁의 당위가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끝까지 속론에 맞서며 개혁을 위해 위난을 무릅쓴 것은 그 일기의 정신과 부합한다.

## '마음은 기다[心是氣]'

마음에 대한 논의는 본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주자 철학 사상에 있어 중추적 위치에 있다. 『주자어류』에 마음을 말하게 되면 감정과 본성의 총뇌(總腦)를 알게 되고 도리가 있는 곳을 깨닫게 될 수 있다거나 장재의 "마음이 성정을 통섭한다[心統性情]"라는 명제를 옳게 여겨 이 한 구절은 바뀔 수 없다고도 했다.

마음을 리로 보느냐 기로 보느냐, 아니면 리와 기가 합하여진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서 우암은 '마음은 기다'의 입장에 섰다. 그가 마음을 기라고 한 것은 주자와 같이 마음의 "허령하고 어둡지 않으며 만사에 대응하며 이치를 갖추고 있다"는 기능 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sup>33)</sup> 그가 마음을 그릇에, 본성을 그릇에 담긴 물에 비유한 것도 그의 '마음은 기이다'라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sup>34)</sup> 형이

<sup>31) 『</sup>율곡전서』 권12 答安應休"人心道心,通情意而言者也.人莫不有性,亦莫不有形,此心之知覺,旁由形之寒煖飢飽勞佚好惡而發,則謂之人心,初非不善,而易流於人欲,故曰危,直由性之仁義禮智而發,則謂之道心,此則旣無不善,務在擴而大之也.只是精微難見,故曰微"

<sup>32) 『</sup>栗谷全書』 권9, 答成浩原 壬申"知其氣之用事, 精察而趨乎正理, 則人心聽命於道心也. 不能精察而惟其所向, 則情勝慾熾, 而人心愈危, 道心愈微矣. 精察與否, 皆是意之所爲, 故自修莫先於誠意"

<sup>33) 『</sup>송자대전』附錄 권15, 「語錄」, "心之虛靈, 分明是氣歟. 先生曰, 分明是氣也."

하자인 기(器)는 곧 기(氣)요, 기가 기(器)인 것은 기가 도(道)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암은 말한다.<sup>35)</sup> 이런 맥락에서 주자가 허령하고 어둡지 않으며 뭇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음은 기가 되는 것이다. 그는 지각(知覺)을 심에 속하게 한 것이 주자의 평생 지론으로 본다.<sup>36)</sup>

마음의 허령불매와 함께 마음의 본체가 광대 광명하다는 것에도 우암의 관심은 집중된다. 마음의 본체를 광대하다 함은 마음이 머금고 있는 태극·도체가 광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그는 마음에는 참다운 본체[眞體]와 실제적 작용[實用]이 있다고 하고, 마음의 진체란 마치 거울의 밝음과 같고 실용은 그 밝은 거울이 비출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37) 밝지 못하면 비출 수 없고, 비추지 못하는 거울은 이미 거울이 아니다. 거울에 티끌이나 때가 쌓이면 아무리 밝은 거울이라도 거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듯이 본래 허령 불매, 광명 광대한 마음의 본체에 인욕·물욕이 끼이면 그 마음의 본체는 일상생활 속에 드러나지 못한다. 사물이 이르지 않고 사려가 싹트지 않으면 하나의 본성이 혼연히 모두 갖추고, 도와 의가 다 갖추어져서 충막(沖漠)하여 아무 조짐도 없으나만상(萬象)이 삼연(森然)하게 이미 갖추어진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일러 '마음이 태극이 된다'라고 하였다.38) '마음이 태극이 된다'는 주장은 "도체는 무궁하다. 그런데 마음이 이 도를 머금고 저장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본체 또한 무궁하다. 그러므로 도가 태극이듯 마음 또한 태극이 된다"로 이해하고 있다.39)

이진상이 지적했듯이 이이가 마음은 성과 기를 합하여 한 몸의 주재가 되는 것[心者合性與氣而爲主宰於一身者也]이라고 했고, 송준길은 마음을 이와 기를 합하여 이름한 것[合理氣而名]이라 했으며, 조성기는 심을 이기의 합[理氣之合]이라 했고 김창협은 사람의 한 마음은 이와기의 합[理與氣合]이라 했으며, 이재는 심은 이기를 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의심이 없다[合理氣說無疑也]라 했다. 그런데 한원진만 '마음은 곧 기다[心卽氣]'라는 것으로 평생 명맥을 삼아 이간과 이재의 본선(本善)설을 배척하고 하나같이 주자 이황의 이발(理發)의 취지를 논박했다.40) 그가 우암의 종지를 충실히 이어갔다는 말이다.

#### 대의(大義)사업

우암이 당대와 후대에 문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것은 의리론과 그 사업의 실천이다. 우암을 논할 때 언필칭 대의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후학들에게 있어

<sup>34) 『</sup>송자대전』 권104, 書「答金直卿仲固」, "心如器, 性如其中之水."

<sup>35) 『</sup>송자대전』 권133, 雜著「退溪四書質疑疑義」, "何以謂氣爲器, 氣是該貯此道之物, 故謂之器."

<sup>36) 『</sup>송자대전』권131 雜著 看書雜錄

<sup>37)『</sup>송자대전』권90, 書「答李汝九」(癸丑 十二月 二十六日), "心有眞體實用,體如鑑之用,用如能照."

<sup>38) 『</sup>송자대전』권136, 雜著「一陰一陽之謂道」.

<sup>39) &</sup>quot;마음이 태극이 된다"라는 명제는 소옹에게서 나왔다. 『송자대전』131卷, 雜著「看書雜錄」.

<sup>40)</sup> 이진상 『寒洲集 권7, 答沈稺文 庚申 "栗谷曰心者合性與氣而爲主宰於一身者也. 同春曰心者合理氣而名, 拙修齋曰心者理氣之合, 農巖曰人之一心, 理與氣合, 陶庵曰心合理氣說無疑也..,獨南塘之說則以心卽氣三字,爲平生命脈,一以斥巍陶本善之說,一以駁朱李理發之旨"

서 당대는 물론 이제까지 이미 상식이 되어있다. 조선 17세기 상황에서 우암이 취한 의리의 길은 곤고하여 피하고 싶은 길이고 대부분 피했던 길이다. 현실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이다. 왜(倭)·호(胡)에 의한 전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통치 질서 재편의 와중이었다. 집단간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당쟁도 그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 시대는 피사(詖辭)·음(淫)사·눈(遁)사·사(邪)사가 횡류하고 있었다. 혼란의 시대, 전환기를 이해하는 데는 그 나름의 타당성과 해당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그는 학술방면보다 사업 부분의 평판이 많고 그것도 이른바 대의(大義) 사업 (事業)이라 한다. 사업<sup>41)</sup>을 『주역』에서는 음양이 전화(轉化)하는 이치에 근거하여 법칙을 제정하는 것을 변(變)이라 하고 이를 모든 사물에 적용하여 실행하는 것을 통(通)이라 하는데 이 변통(變通)을 들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변통은 그 목적이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 이이가 "진실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듯이 우암 또한 나라와 국민을위한 변통에 적극적이었다. 그의 대의사업이 갖는 시대적 변통의 가치가 후학들에게 멈춤없이 지속적으로 추존되고 지속되었다. 호락논쟁의 참여자들에게서도특히 호론에서도 이런 기조는 어김없이 나타난다.

# Ⅲ. 송시열과 김상헌의 만남

## 1. 우암과 석실의 만남

호란 상황에서 드러난 대의의 표상은 단연 석실 김상헌<sup>42)</sup>이었다. 우암은 1645년 인조 23년 5월 22일 그의 나이 39살에 김상헌을 그의 거처 양주의 석실<sup>43)</sup>로 찾아가서 처음으로 만난다.<sup>44)</sup>이 때 김상헌은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막 귀국해 있었고 나이는 이미 75세였다. 우암은 준비해간 편지를 안에 넣고 문밖에서 기다렸다. "이미 나이 39세가 되었지만 모두들 태산과 북두처럼 우러르는 분은 오직 석실이시기에 선비라면 비록 세대가 천 년 전이고 지역이 만 리 밖이라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의 인품과 언행을 논하여 정신이 서로 통하게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도 석실과 같은 세대에 함께 살고 있고, 사는 곳도 딴 나라가 아닌데다

<sup>41) 『</sup>주역』「繫辭 上」12장

<sup>42)</sup> 김상헌(1570-1652)의 자는 叔度이며 호는 소시에 淸陰, 병자호란 이후로는 石室이라고 칭하였다. 16세에 尹根壽에게 학문을 배웠다.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였고, 壽增 壽興 壽恒 세 손자, 昌國·昌肅·昌直 昌說 昌集·昌協·昌翕·昌業 의 중손이 있다. 저서에는『南槎錄』・『讀禮隨抄』등이 있다.

<sup>43)</sup> 남양주시 미금읍 수석동이다.

<sup>44) 『</sup>청음집』 연보 권2에는 우암의 석실 방문이 1646년으로 나와 있다. 『송자대전』의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가, 현명한 이를 좋아하고 덕을 숭상하는 마음은 소멸될 수 없는 천성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뵙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sup>45)</sup>

석실은 신독재와 가까웠고, 김장생에게 나아가 강론을 들은 일도 있다. 김장생의 만사<sup>46)</sup> 묘지명<sup>47)</sup> 돈암서원의 상량문<sup>48)</sup> 성혼의 신도비명<sup>49)</sup>도 지었다. 또 석실은 우암의 선조 쌍청당 송유의 외손이며.<sup>50)</sup> 또 우암의 당고모가 석실의 형 상건(尚譽)의 아내이다.<sup>51)</sup> 학맥이나 혈연 관계 같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우암과 석실의 만남은 매우 늦은 일이다.

석실은 우암을 맞아 함께 『근사록』의 첫부분 '태극론'을 논변했는데 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논했다.52) 이때 주로 문답하고 논변한 곳은 『근사록』의 첫 부분 '태극론'이었고, 석실이 묻고 우암이 대답했다. 이는 석실의 글53)에서도 우암의글54)에서도 확인된다. 우암은 일찍부터 석실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34세시석실의 「봉사」를 보고 머리털이 곤두 서고 경각심이 일어났었다고 송준길에게말한 일이 있다.55)

첫 만남 이후 우암은 석실의 문인으로 자처하였고 주변도 그렇게 인정하였다. 이듬 해 우암은 석실에게 부친의 묘갈명을 부탁했다.56) 그리고 '세상에 나가 세상의 도의를 담당하였다가 제갈량이나 주자처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자신이 평소 지켜오던 절조를 온전하게 지켜서 무궁한 후세에까지 도의를 수립하는 것만 못할까 싶다는 소회도 피력하고, 석실이 조정에 올리게 될 주청문을 귀기울이고 듣고 싶다거나57) 석실이 지은 숙부의 묘지명에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다.58) 1652년 석실이 죽을 때까지 8년간 두 사람은 너무 늦은 만남을 아쉬워하듯 지극한 신뢰와 존경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 대를 이어 그의 자손들과의 긴밀한 학문적 정치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양가는 마치 한 집안 같은 사귐을 유지해갔다. 이는 대의에 있어서 한 길을 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우암은 비장했던 「악대설화」를 김수중에게 보여주기도 했다.59)

우암은 석실을 대로(大老)로 또 대의의 종주로 칭송하였다.60) 『주역』 박괘

<sup>45)『</sup>송자대전』권27「上淸陰金先生」

<sup>46) 『</sup>청음집』 권7 輓金沙溪先生"坡山寂寞石潭空/世事蹉跎吾道窮/幸賴先生傳緒論/能令後學仰遺風

<sup>47) 『</sup>청음집』 권33「墓誌銘」沙溪金公長生의 묘지명

<sup>48) 『</sup>청음집』 권14「上樑文」沙溪書院

<sup>49) 『</sup>청음집』 권26「牛溪先生神道碑銘」

<sup>50) 『</sup>송자대전』 권139「雙淸堂題詠錄序」 "쌍청당은 마을 복판에서 북쪽으로 위치하였는데, 우리 선조 인 宋愉가 기거하던 곳이다. 부군은 맑은 풍채와 높은 절조가 금고에 빛났는데, 석실 김 선생은 부군의 外孫으로 그 墓文을 지었고."

<sup>51) 『</sup>송자대전』권134「楊根省墓錄」

<sup>52)</sup> 우암이 석실에서 들은 내용은 『陶山記聞』에 수록되어 있다.

<sup>53) 『</sup>청음집』 권4 「지평 宋時烈에게 수답하다」"有美人如玉 三山地一邊 好賢辭授粲 衛道任障川 喜遇東陽過 思論太極編 臨分更惆悵 世事日蕭然"

<sup>54) 『</sup>송자대전』권9 「奉訣致道」

<sup>55) 『</sup>송자대전』 권30「與宋明甫」 1640년 1월 19일

<sup>56) 『</sup>송자대전』권27「上淸陰金先生」1646년 1월 11일

<sup>57) 『</sup>송자대전』권27 「上淸陰金先生」 1646년 5월 15일

<sup>58) 『</sup>송자대전』권27 「上淸陰金先生」 1648년 8월 4일

<sup>59) 『</sup>宋書拾遺』 권7, 雜著, 「幄對說話」

(剝)괘 상구효의 '석과(碩菓)'로 칭하고 그에 의하여 훗날 일양(一陽)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며,61) 또 낙엽 진 숲에서 준걸스런 매가 깃을 다듬었다가까마귀 입 다물고 산토끼 엎드렸을 때에 곧바로 푸른 창공에 높이 날아오르듯이, 옛날 어둡고 어지러울 때에는 양옥(良玉) 같은 마음이 더욱 깨끗하였고 뭇 소인배들이 권세를 다툴 때에는 한 번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도마뱀이 용을 흉보고 하루살이가 나무를 흔드는 격으로 소인들이 교설(巧舌)로 모함하기를 피리 불듯이 하였지만, 만 번 죽을 뻔한 끝에 고국에 돌아와 볼품없는 집에 거처하니, 별 중에 북두가 있고 산 중에 태악(岱嶽)이 있는 것과 같았다고 형용하였다.62)

석실의 자손들도 우암을 석실의 문인으로 인정하였고 석실의 사손인 수증 및수흥,수항 3형제가 모두 우암의 문인이 되었으며 세칭 6창으로 불리는 이들의 자식들도 문인이 되었다.63) 맏이인 수증은 우암에게 석실의 유사(遺事) 집필을 부탁했고64), 석실의 묘정비를 짓게 하였으며, 석실의 문집 『남사록』의 서문을 받기도 했다.

# 2. 석실과 우암의 대의사업 협력

우암과 석실 양자의 만남은 사실상 대의 사업을 앞에 두고 상호 존경과 의기가 투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유자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의는 시대의 표준이 되고 귀취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65) 75세 노구의 석실은 자기의 뜻을 이어갈 후계자 또는 소장파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했고, 우암은 자기를 뒷받침해줄 대인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주역』건래 2효와 5효의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의 정황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 당시 2효의 대인은 우암이고 5효의 대인은 김상헌이다.

우암은 1648년 석실에게 중봉 조현의 비문을 강청하여 얻어낸다.66) 조현은 율곡의 적전의 하나이고 왜란시에 순절 순의한 인물로 충의의 사표로 일컬어지고 있었다. 우암은 『청음문정선생사실(淸陰文正先生事實)』 두 권을 편집 간행하였다. 호안국이 『춘추전』을 지어 올리면서 "천리는 날로 소멸되어 가고 인욕은 날로 자라나 이적이 중화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니 어지러움을 평정하여 올바른 데로 돌리는 책은 역시 세상에 읽혀져야 합니다"라고 말한 일이 있는데, 우암은 이

<sup>60) 『</sup>송자대전』 권2 「金能之가 보낸 운을 차하여 사례하다」 "中夜悲歌泣孝宗 當時大老在城東 蒲輪束 帛勤初服 同德還須愼獨公"

<sup>61)『</sup>송자대전』권182「石室先生墓誌銘 幷序」

<sup>62)『</sup>송자대전』 권152「祭淸陰金先生文」

<sup>63) 『</sup>송자대전』 전1 「詩」"君家伯仲季 皆逮文正時 前衿又後裾 和樂吹参差 賦性各聰明 學業師不疲 長大絶瑕類 瑩璧沈寒漪 出當世道重 爛若日星垂 俄然事大謬 不與他人宜 伯仲習坎亨 季也歲寒知 相將光祖烈 邈與古人期"

<sup>64) 『</sup>송자대전』 권138「淸陰先生遺事序」

<sup>65) 『</sup>송자대전』「附錄」「語錄」이희조록

<sup>66) 『</sup>송자대전』권27「上淸陰金先生」1648 8월 4일

것을 들어 석실의 행적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세도가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석실의 묘정비를 지었다. 그는 병 자년(1636)과 정축년(1637)의 사이. 천하가 극도로 어지러워 많은 사람들이 서 슴없이 오랑캐의 앞잡이 되는 의논을 할 때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 씀함으로써 이후 그 말은 더욱 막히게 되었으나 그 기개는 더욱 펴졌고, 그 몸은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었으나 그 도는 더욱 형통해졌으며, 그 어지러움은 더욱 심해졌으나. 그 다스림은 더욱 더 안정되었다고 하였다.67) 석실의 의리를 역』 곤(困)괘의 '험난함에 처하였지만 그 도는 형통하여 기쁨이 가득한68) 상황 으로 묘사한 것이다. 우암은 종종 자신의 처신을 설명할 때 석실의 예를 들기도 하였는데 이는 석실에 대한 그의 존중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는 유배되어있을 때 어느 날 '참으로 위협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겁내는 마음이 없네. 그러나 이 는 반드시 학문의 힘을 얻어서 그런 것은 아니네. 청음 김상헌이 심양에 잡혀갈 적에 어떤 이가 그의 편안하고 한가한 태도를 말하자, 석실이 웃으면서, "이는 마치 견고하게 사람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형장을 치면서 '이놈이 형을 잘 견딘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였는데, 오늘 나의 일이 바로 이와 같네"라고 하였다. 우암의 손자가 그의 유배 길에 따라가려 할 때 만류하면서 석실이 그의 양자 광찬(光燦)이 심양에 따라 가려는 것을 말린 것처럼 조상의 묘와 사당을 지켜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도록 하라고 했던 것이다.69)

우암이 석실을 찾아가 만나고 그와 협력함은 결국 시대의 대의를 선양하고 그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선언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석실 후손의 번창으로 결과적으로 우암의 사업은 매우 단단한 인적 후원을 확보하였다.70)

#### Ⅳ. 권상하의 문인과 김창협의 문하

호락논쟁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우암의 문하인 권상하(1641-1721)와 김창협 (1651년-1708년)<sup>71)</sup>의 문인들이다. 권상하는 34에 화양동을 찾아가 우암의 문

<sup>67)『</sup>송자대전』권171「石室書院廟庭碑」

<sup>68) 『</sup>주역』 困괘 "處險而說"

<sup>69) 『</sup>송자대전』 권125「寄子」 1689, 2월

<sup>70)</sup> 이른바 懷尼의 문제가 있을 때 김창협 김창흡은 외숙인 나양좌와 다투기까지 하며 우암을 변호하였다. 석실 후손들의 영향력은 조준호 「조선후기 석실서원의 위상과 학풍」 『조선시대사학보』11 1999년 65-95쪽 를 참조할 것.

<sup>71)</sup> 김창협(金昌協은 그의 아우 김창흡이 찬한 묘지명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력을 지닌다. 김수항의 여섯 아들 가운데 둘째이며, 15세에 靜觀齋 李端相의 사위가 되며 학문적 연관을 맺었다. 1674년에 우암을 龍門에서 만난 이래 학문적 내용의 편지 다수를 주고받았고, 후에 우암이 『朱子 箚疑』를 저술할 때 김창협의 도움이 많았다. 이조의 좌랑, 정랑과 홍문관의 수찬, 교리와 사헌부의 지평, 집의와 사간원의 헌납) 대사간과 승정원 동부승지와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고 청풍 부사를 끝으로 벼슬을 그만두었는데 이는 1689년에 선친이 사약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 평소 지병이 심했다. 1708년 4월 11일에 죽었다.

인이 되었고<sup>72)</sup> 김창협은 김수항의 아들로서 24세 되는 1674년 6월 용문산과 신륵사에서 모시고 강설하면서 그 우암의 문하가 되었다.<sup>73)</sup> 두 사람이 정식으로 우암의 문인이 된 것이 같은 해이다. 문인들은 그 폭이 매우 넓지만 훗날 학술과 정치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후학은 권상하와 김창협이라 할 수 있다. 우암 의 촉망과 기대와 신뢰를 받은 이 두 사람 사이는 그리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명(後命)을 예상한 우암은 『주자대전차의』와 『주자언론동이고』 등 미완의 사업을 권상하게에 부탁하면서 김창협과 협력하여 이루라고 당부하였다. 그는이런 일들을 꼭 김창협과 함께 하였으면 하는 이유로 그가 석실을 뵙게 되었을때 석실이 몸소 『근사록설』의 「태극도설」 주를 가져와 그와 상량해 보시고 또 시를 지어 '무원의 정맥을 좇는다'고 권면 하였던 것과 김창협의 부친인 김수항 역시 『주자대전차의』에 기울인 뜻이 적지 않았기에 '계지술사(繼志述事)'하는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였다.74) 그런데 유사를 듣는 자리에서 권상하는 김창협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염려했다.75) 그런 분위기를 짐작하고 있었던 듯 우암은 바로 김창협의 도움을 얻지 못할 때는 이희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였고, 그가 잘 도울 것임을 말했다. 실제로 이후 『주자대전차의』 편찬은 김창협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다만 권상하와는 달리 김창협은 그의 가계(家系)에 대한 의무가 무거웠을 것이며, 특히 석실의 뜻을 이어가는 것과 부친 김수항이 하던 사업을 받드는일이 권상하와는 입장이 달랐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호락논쟁의 발단자이면서 호론의 중심역할을 한 한원진(韓元震 1682-175 1)76)은 권상하의 문인이다. 한원진은 주로 충청도 홍성 일원에서 머물렀고 강학했다. 그의 학문은 권상하와의 만남으로 그 향방이 이루어졌다. 한원진은 자발적으로 권상하를 찾았다. 그는 우암의 유지를 수행할 인재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있던 상황이었다. 그가 김창협(1651~1708)에게 보낸 편지글에 한원진에 대한인상과 기대가 잘 나타나 있다.

<sup>72) 「</sup>한수재연보」에 따르면 권상하는 1674년 2월 청주 화양동으로 찾아가서 경서에 대한 **疑義**를 질정하면서 이때부터 君. 師.父를 한결같이 섬기는 의리를 더욱 돈독히 하여 왕래하며 배웠다고 한다.

<sup>73) 「</sup>농암연보」에 따르면 1674 김창협이 24세 되던해 6월 우암을 모시고 용문산에서 회합하고 이어 여주 신륵사에서 며칠간 강설하면서 『소학』에 대하여 질정하였다.

<sup>74) 『</sup>송자대전』권9 奉訣致道」기사년(1689) 5월 14일

<sup>75) 「</sup>寒水齋年譜」49세 1689년조에서는, 우암이 후명을 예상하면서 『朱子大全箚疑』의 서문을 권상하에게 건네며 "지금부터는 차의를 그대와 중화가 헤아려 수정하여 고쳐라"라고 했다. "중화와 안정되게 못하면 어찌합니까"하고 묻자 "그러면 동보가 꽤나 자상하니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다.

<sup>76)</sup> 한원진(韓元震)자는 德昭, 호는 南塘이다. 저서로는 『남당집』이 있으며, 편저로는 『경의기문록』·『퇴계집소석』·『의례경전통해보』·『장자변해』·『선학통변』·『왕양명집변』·『거관록』·『심경부주차기』·『춘추별전』·『근사록주설』·『이락연원록』·『家禮疏擬疑錄』·『家禮源流疑錄』·『고사편람』 등이 있다. 1741년 저술한 『주자언론동이고』는 우암과 권상하를 거쳐 53년만에 완성된 한국 성리학사상의 거작이다.

"한원진이란 자가 찾아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나이는 겨우 스무살이지만 학식이 정밀하고 해박하여 우리 유가의 사업에 마음을 쏟아 매우 가망이 있습니다. 후생 가운데 이러한 사람을 얻었으니 기쁜 일입니다."77)

한원진은 권상하를 찾아 제자의 예를 갖추고 나서 22세 때 김창협을 방문하였다. 이는 당시 우암 문하의 양대 흐름을 모두 취하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이후 김창협과의 왕래는 드러나 있지 않다. 김창협의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것들이 문집에 들어있을 따름이다. 78) 인물성문제를 두고 호론과 낙론의 대립이 발생한 것은 한원진이 김창협을 찾아가고 나서 3년 쯤 경과한 시점이다. 훗날 『주자대전차의』를 두고 우암의 문인들과 김창협 가문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한워진의 학문적 역량이 학계의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은 24세 때 홍주의 오 서산 정암사에 머물러 독서를 하다가 처음으로 「동지들에게 보이는 주장[示同 志說], 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해 연이어 『율곡별 집부첨』「인심도심설」을 지었다. 『율곡별집부첨』은 박세채가 편정한 『율곡별집』 을 우암이 여러 군데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시정할 것을 문하에 과제로 남겼는 데 이를 권상하가 다시 하워진에게 당부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율곡후학들 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암 문하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는데 권상하가 24세의 한 원진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과 한원진이 권상하를 만난 것이 겨우 3년여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권상하가 한원진을 어느 만큼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주는 주요 자료가 된다. 최징후가 정암사로 한 원진을 찾아온 것도 이 해이다. 그는 중요한 학문적 동지를 얻었으며 이제 동료 들에게 구체적으로 그의 학설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사실상 인물성 론에 대한 논변이 시작되었다. 27세에 한원진은 다시 스승 권상하의 부탁에 따 『퇴계집차의』를 지었는데 이 역시 우암이 권상하에게 유사로 남긴 것이 고 권상하가 한원진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일이니 권상하는 선사의 중요한 부 탁 두 가지를 한원진을 통하여 해결한 셈이다.

한원진이 1705년 한원진의 「시동지설(示同志說)」이 발단이 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이간(李柬 1677-1727)<sup>79)</sup>이 반론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권상

<sup>77)</sup> 權尙夏,『寒水齋集』권5, 書「與金中和」(癸未 六月 別紙). 이 편지에서 권상하는 김창협에게 成晚 徵과 함께 한원진을 소개하고 있다. 성만징에 대하여는 "德性에 대한 공부가 독실하여 그와 서로 대할 때에 매우 유익함을 느꼈습니다"라고 했다.

<sup>78) 『</sup>남당집』에서 김창협과 주고받은 편지는 보이지 않는다. 『南塘集』 권29, 雜著, 對農巖集中理 氣問, 讀農巖性惡論辨 癸巳, 『南塘集』 拾遺 권6, 雜著에 農巖四七知覺說辨과 拙修齋說辨이라는 김창협과 삼연 그리고 조성기의 글에 대한 비판이 보인다. 또한 『南塘集』 권7, 書 師門禀目, 上師門 庚寅閏七月에 권상하에게 김창협과 삼연의 학설에 대한 질문과 자신의 비판적 소견을 피력하기도 하는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sup>79)</sup> 이간의 자는 公學, 巍巖·秋月軒, 시호는 文正이다. 권상하의 제자로서,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716년 山林職인 세자시강원 諮議에 임명되었다. 그 주장은 여러 측면을 지니고

하 문중안에서 확대된 학술논쟁은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간접적 논변이 계속되다가 28세되던 1709년 4월 홍주의 한산사80)에서 이간 최징후 한홍조 윤혼 현상벽 여러 동료들과의 한 주일간 미발 오상 호연지기 역학계몽 태극도설의 충막무짐 서명 대학 등에 대하여 논변을 벌였다. 이간이 이때의 논변을 주제로 하여지은 장문의 「한산기행」에 대하여 한원진에게 발문을 요청하자 11월에 자신의입장을 담은 발문을 지었다. 이들 문인 사이에 전개된 논의는 4년여 기간인 그의 나이 32세 말까지 진행되다가 서로 촌보의 양보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43세가 되는 1724년 한원진은「이공거가 사문에 올린 편지에 대한 변론[李公擧上師門書辨]」을 썼다. 이 해에 그는 『주자언론동이고』 초고를 완성하고 서문을 썼다.81)

두 사람의 논변은 마치 주자와 육상산이 태극과 무극에 대한 논변에서 서로 제 길을 가자는 식으로 결별한 것과 같은 양상이 되었다. 두 사람이 합의 없이끝난 것은 나름대로 철학함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신념과체계에 대한 고집, 보다 완전한 체계의 수립을 위한 노력 등은 매우 의미 있는일이기 때문이다. 반대가 상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한산사는 주자와 육산상이 만나 학술토론을 했던 송대의 아호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호중 논란이었던 것이 논론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여기에 서울의 김창협 문인들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논점도 늘어났다. 김창협의 문인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논변에 참여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듯 하다. 그는제가 김창협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1678년 김창협이 우암에게 『맹자』「생지위성장(生之謂性章)」에서 주자가 "이(理)로써 말한다면 금수가 품수한인의예지가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한 것과 『중용』에서 주자가 "사람과 금수가 각각 이를 품수하여 건순오상(健順)과 오상(五常)의 덕이 되었다"고 한 말과는 서로 다르지만 성에 편전(偏全)의 다름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나중에 권상하가 율곡이 "인간의 성이 금수의 성이 아닌 것은 기의 국한성 때문이고, 인간의 리가 곧 금수의 리인 것은 그 통일성(通一性)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주자의 "리가 같다고 한다면 옳으나, 성이 같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를 들어인간과 금수의 성이 같지 않다고 하여 양자가 견해를 달리 한 것이 있었다.

이는 거의 30년 이전의 일이지만 두 사람의 문하에서 한쪽이 먼저 자기 스승의 견해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일어났으므로 상대 문하에서 역시 자기 스승의 관점을 지지하는 활동이 있어나는 것은 문하생으로서는 나름의 의무감 같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이는 오래 전 일이므로 논쟁발단의 충분한 논거가 되는

있으나 대표적인 내용은 人은 물론. 초목·금수와 같은 物에도 모두 五常이 갖추어져 있어 인·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어떤 德이 외면적으로 편중되게 나타나는 것은 기질의 차이[正偏通塞]에 기인할 뿐 본연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문집으로 『외암유고』가 있다.

<sup>80)</sup> 지금의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소재의 사찰. 지금은 유지만 남아있음

<sup>81)</sup> 한원진의 학술적 생애에 대해서는 이상곤의 『한원진』(2009년 6월, 성대 출판부)을 참조할 것

추정은 결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전개된 것에서는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이제 쟁론이 이재와 한원진 사이의 쟁론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호락논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충청도를 가리키는 호서(湖西)의 노론 학자들은 당시에 호학(學), 호론(論), 호당(黨)으로 불렸고 서울에 속했던 김창협 이재 김원행 등의 학자들은 낙학(學), 낙론(論), 낙당(黨)으로 불렸다. 이들 사이의 쟁론을 호락지론, 호락지쟁, 호락시비(是非), 호락변(辨), 호락이학(二學), 호락이가(二家), 호락본말(本末) 등으로 불렸다. 논변은 내용이 난해하고 자료가 방대하여 연구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박성양이 「호락원류」에서 거론하고 있는 마지막 세 인물이 송환기(宋煥基, 1728-1807), 김정묵(金正默 1739-1799)82), 박윤원(1734-1799)83)인데 이들의 생졸연대를 감안하면 이들 간의 논적을 두고이루어진 맞춤형 논변은 19세기초에는 거의 종식되었다. 이후에는 화서학과 한주학과 간재학과 등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 주로 지지나 비판 또는 평가적 발언이나 논설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00여 년간 지속된 뜨거운 논쟁이었고 그 여열은 조선왕조 멸망 이후에도 남아있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호락논쟁의 주제들은 깊이 있는 철학적 과제들이다. 그것은 대체로 크게 구별하여 미발심체의 문제로 마음의 정체에 대한 논쟁, 인간과 여타 존재의 성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성인과 범인의마음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논쟁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눈다. 사람에 따라서 6개로 구별하기도 한다. 1. '마음은 기이다'. 2. '人物性의 같고 다름이다'. 3. '미발시 기질성의 유무' 4 '천명의 성 일구는 둘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5 '호연지기를 하는데 현우의 품수가 다르다' 6. '충막무짐은 다만 고요한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다'.84)

윤봉구는 한원진의 「행장」에서 그가 일생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 없는 것[人獸無分] 유학과 불교의 구분이 없는 것[儒釋無分]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없는 것[華夷無分]을 경계하였다고 했다. 즉 한원진은 당시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물성 동론은 사람과 짐승의 분별을 하지 않음이고 미발심체선설은 유가와 불교를 분별하지 않음이며 원대 유학자 허형을 존숭함은 중화와 이적을 분별하지 않음이라고 문하생들에게 강론하였으며 이것이 한원진 일생의 정론이었다고 하였다.85)

<sup>82)</sup> 김정묵은 김장생의 후손이다. 그는 한원진의 心性·理氣·예설 등에 관한 논술이 율곡 우암의 본 뜻에 많이 위배됨을 지적, 고증을 들어 변증하는 『圭刀隨錄』을 저술하였다.

<sup>83)</sup> 박윤원은 西學의 폐해가 도교나 불교보다도 크다고 하여 배척하고, 오직 경전의 훈고와 성리학에 몰두하였다. 金昌協·李縡·김원행의 학통을 계승한 嫡傳으로, 다시 문하의 洪直弼에게 전수해 申應朝·任憲晦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성리학의 중요한 학파를 형성하였다. 心說에서 心은 氣라고 하였다. 또한 예학에 관해서도 깊은 연구와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 『近齋集』과 『近齋禮說』이 있다.

<sup>84) 『</sup>晦堂文集』 刊22, 雜著 湖洛說辨 "我東自分黨以來. 風氣有異. 論說不齊. 要之春秋之無義戰也. 惟湖洛之黨. 名義最正. 其中不得無守勝之詛盟同浴之裸裎. 而義理之辨. 不害爲君子之爭也. 愚嘗竊取而讀之. 兩下參攷. 折衷其同異而辨之如右. 大抵其說曲折甚多. 而撮其大者而言之. 其目有六. 其一曰心卽氣也... 其一曰人物性同異也.... 其一曰未發時氣質性有無也...其一曰天命之謂性一句. 分作兩截. 天命作本然性. 性字作氣質性也...其一曰浩然之氣. 賢愚之所稟不同也... 其一曰冲漠無眹. 只可於靜上言也"

<sup>85) 『</sup>병계집』권59「남당한공행장」. 윤봉구의 이러한 기술은 한원진이 권형숙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한원진이 분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그의 언론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짐작할수 있다. 그가 인물성이론을 주장했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과 정합된다. 그의 학문적 스승인 우암과 권상하 역시 인류와 금수, 중화와 야만, 그리고 천리와 인욕을 구별하는데 주력했으며, 전자에 가치를 두고 후자를 물리치는 것을 대의라고하였다. 이러한 기조가 한원진에게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가 구별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지 않고 문명과 이적을 구별하지 않으며 유교와 불교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암·권상하·한원진은 스승인 율곡과는 달리 구별의 철학을 강조했다.86) 시대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다. 청과의 전쟁에서는 패전국이 되었고 따라서 승전국 청은 여러 형태로 조선을 압박했고, 친청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조정이 분열되었다. 자연 군자 소인의 구별과 대의와 현실론의 대립이 나타났다. 우암은 현실 속에 은폐되고 엄폐되어있는 악의 소재를 그냥 방치해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치하였다. 권상하 한원진은 우암이 취한 태도와 사업의 방향을 지속하였다. 그의 시대 조선의 정계는 환국이 거듭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소론이 집권한 이후에도 병신처분(1716년), 1721-22년의 신축임인 환국과 옥사, 1725년 을사처분, 1727년 정미환국, 1728년 이인좌의 난, 1729년 기유대처분, 1740년 경신처분 등이 일어나 집권세력의 교체와 정치적 보복이 되풀이 되던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취한 노선은 강고한 분별론이었다. 그것은 군자당과 소인당의 구별이었다. 한원진은 인물성동론을 사람과 금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미빌심체에 대한 낙론은 불교의 종지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원진은 스승 권상하로부터 받은 과제에는 『주자언론동이고』의 완성이 들어 있었다. 이는 주자의 언론들 가운데서 서로 같고 다른 점을 살펴서 진위와 정론을 밝히는 것으로서, 『퇴계서차의』 『율곡별집부첨』과 같이 우암이 권상하에게 그 완수를 부탁한 것이었다. 이 일은 1741년에 편정이 완성되었다.87) 그리고 이 것은 조선조 후기 성리학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주자 언론의 '동이(同異)'를 논하는 철학적 의미는 『주자언론동이고』 1권 첫머리에서 볼 수 있다. 한원진은 주자가 "리기(理氣) 성명(性命)을 논한 것이 하나가 아닌데 각각 그 언론이 뜻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관통된다"88)고 하였다. 한원진의 관심사가 주자의 언론은 다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관통되는 바를 드러내고자 함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해석학적이다. 말은 다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같은 것을 다룬다는 점을 밝혀내는 일은 웬만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sup>86)</sup> 이를 두고 현상윤은 우암이 스승 율곡의 통합적 학문의 관용적 태도를 배우지 않은 것에 안타까 움을 표하였다. 이는 시대가 다르면 처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점이 있다.

<sup>87)</sup> 이 해는 『경의기문록』이 간행된 해이기도 하다.

<sup>88)</sup> 한원진, 『朱子言論同異攷』권1, 「理氣」1-左, "先生論理氣性命, 其說不一, 各有所指, 而實相貫通."

한 학문적 통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원진은 주자의 말에서 "같음 가운데서 그 다름을 인식하고, 다름 가운데서 그 같음을 본다"와 "같다고 하면 같음 속에 다름이 있음이요, 다르다고 하면 같지 않음이 없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는 성현들이 성을 논할 때 같다고도 하고 다르다고도 하여 통하기 곤란하지만 주자의 말에 근거하면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진 성에 대한 논변의 판단과 사례를 회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89)

낙론은 이간의 제자였던 박성원이 문하로 들어갔던 이재와 김창협의 후손인 김원행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재는 도암(陶菴), 한천(寒泉)의 호를 지니고 있고 대사헌 재제학 공조판서에 오르는 등 고위관직에 있기도 하였다. 그는 김창협의 문인으로 『가례원류(家禮源流)』의 편찬자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자, 노론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였고 이후 그는 노론의 중심 인물로 활약하였다. 의리론을 들어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준론(峻論)의 대표적 인물로 당시의 정국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호락논쟁에서 낙론의 입장에 섰다. 예학(禮學)에도 밝아 많은 저술을 편찬하였는데 특히 『사례편람(四禮便覽)』이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윤기의 『무명자집』에 「호락심성변 뒤에 쓴 글[書湖洛心性辨後]」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이재의 문인 최석(崔祏)이라는 사람이 한원진을 찾아가 강론하고 돌아와 이재에게 고하자, 이재가 시를 지어 한원진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한천시 로 불리는 그의 시는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있다.

등자 하니 심(心)과 성(性)의 사이에서 蓋聞心性間 기(氣)의 영역을 지나치게 크게 잡아서 過占氣分界 갖춘 것의 부분과 전체를 모두 본연 성(性)이라 하였으니 偏全作本然 기질을 심(心)의 체에 해당시킨 것이네 氣質當心體

이 시를 접한 한원진이 발문을 지어 반박했다. 발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심과 성에 관한 도암의 논설을 보면, 그는 사람의 성이 금수의 성과 같지 않으며 성인의심이 보통 사람의 심과 같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사람의 성이 금수의 성과 다르다는 말은모두 기질에 대한 말이지 본연에 대한 말이 아닌데, 그는 글을 거칠게 읽어 이치를 너무 엉성하게 이해했다. 그의 잘못은 사람과 금수를 구별하지 않아서 불교의 논리로 빠져드는 것이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sup>89)</sup> 한원진、『朱子言論同異攷』권1、「人物之性」21-左.

이재의 문인 최석이 다시 발문 뒤에 글을 써서 조목조목 논파하고 이를 윤봉구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실어 『호학변대요(湖學辨大要)』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재의 문인 최석은 나름의 시각과 이론으로 한원진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윤기는 "최석은 단락마다 분석하여 많은 말을 하였는데, 쌍방이 각자 점점 격렬해져서 서로 맹렬히 비난하며 장문의 글로 근거를 널리 인용하고 자세히 논증하였다. 지금까지도 양측의 문인들이 각자 스승의 설을 전수받아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고는 눈이 아찔하였다고 하고는 그 내용이 경전 속에 들어 있는데 여러학자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이재와 한원진은 직접적 대면 논변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다.

이재가 한원진에게 보낸 시를 통상 한천시라고 하는데 '한원진은 호결의 선비[德昭豪傑士]'로 시작하여 '무릇 또한 쇠퇴한 세상을 근심함이지[蓋亦憂衰世]'로 끝나는 5언절구 54구 270자에 이르는 긴 시이다.90) 중간에 "갖춘 것의 부분과 전체를 모두 본연 성(性)이라 하였으니[偏全作本然]를 인물성동이문제로 "이는 기질을 심(心)의 체에 해당시킨 것이네[氣質當心體]는 성인과 범인의 마음의 차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비판적임이 드러난다. 박성원91)이 이 시를 풀이한 것이 있다. 그는 매우충실하게 이재의 이론을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였다.

권상하와 윤봉구 등과 교류가 있었던 이재는 이들을 통하여 논변의 내용에 접할 수 있었고 윤봉구와는 4차례 서신을 왕래하면서 호락의 논변에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심은 참으로 기입니다. 반드시 성과 기를 합하여 말해야 그 듯이 갖추어 집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심을 말한 것을 따라 기로만 판단하면 안됩니다. 주자가 어떤 사람의 형이상하로 물은 것에 답하여 어느 한족에 전적으로 소속시키지 않았던 것고 같습니다. 그러나그 속에서 보면 단독으로 기를 가리켜 말하면 이는 하나이고 기는 둘입니다. 성인중인의 마음은 같지 않게 됩니다. 이 두 마디는 바로 성을 논함에 본연기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라는 것은 비록 청탁수박의 다름이 있을 지라도 그 근본은 담일한 것일 다름이니 심 또한 기의 정상(精爽)이어서 또 이와 합하여 말하면하나의 기자만 오로지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체의 담연함은 성인이나중이나 같습니다. 미발시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다."92)

<sup>90) 『</sup>陶菴集』 刊4,詩,崔生祏叔固歸自南塘.盛道講說.聽之有作.[南塘卽韓掌令元震所居]"德昭豪傑士.往昔舉于海.自有累世好.幸又生間歲.到老不一識.意見知相戾.秋間崔叔固.過我告南逝.閒是雄辯人.子將何以說.欲令大議論.歸一立談際.知君大力量.且恃明見解.然亦不易事.自信或太銳.徧交諸君子.資益亦不細.留連數月歸.問疾復來稅.初學於先進.推遜乃其例.得無或失言.旨意願深諦.蓋閒心性間.過占氣分界.偏全作本然.氣質當心體.難將一寸莲.敵得千勻勢.和者僅一二.不合難數計.千萬極不是. 粟翁說得快.外此宜未敢.恐亦坐亢厲.義理天下公.偏見難拘制.此事非可法.宜作反身戒.濯舊以來新.永言願自勵.况閒狀師德.以是爲關棙.蓋於本說外.推演謂善繼.尤菴及逐翁.傳授有次第.自誤還小事.貽累豈不大.吾道本衰敗.論議又不齊.客去私自識.蓋亦憂衰世"

<sup>91)</sup> 박성원(朴聖源 1697-1767)의 심성론은 스승인 이간의 학설을 지지함으로써 한원진 등의 호론을 반박하고 낙론에 동조하였다. 그는 또한 禮書의 연구에 집중 『禮疑類輯』을 편찬하였다. 저서로는 『敦孝錄』·『保民錄』·『敦寧錄』·『謙齋集』 등이 있다.

<sup>92) 『</sup>陶菴集』 卷10, 答尹瑞膺 鳳九 心說辨問 乙卯 "竊謂心固氣也。然必合性與氣言之。其義乃備。故 從古言心。未嘗專以氣斷之。如朱子答或人形而上下之問。不曾專屬一邊。 然若就其中。單指氣言之則

## V. 주변의 비판적 평가

호락논쟁의 열기가 식을 무렵 노론 내부에서 율곡 우암을 종주로 섬기는 위정 척사파가 등장하였다. 그 중심 인물 이항로는 그 사승이 전통적인 노론의 학맥에 서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들은 외세의 충격 그리고 청을 통하여 유입되는 새로운 문화와 사회 내부의 변화에 조선 성리학의 축적된 유산을 동원하였다. 그들은 율 곡 사상과 우암의 대의로 무장하여 위정척사의 기치를 내걸었고 이를 실천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기존의 호론 낙론의 인사들과는 별 연관이 없다. 그럼에도 당대 학계의 쟁점으로부터 그들이 무관 무심할 수는 없었다.

이항로는 우암을 존중하면서 율곡을 사숙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주자와 우암을 율곡보다 더 존승하였다. 그는 "이제 송자의 사공(事功)은 공자나 주자에 비하여 짝을 이룰 것이 있다"고 하였고 "여러 성인을 집대성한 것은 공자이고 여러 현인을 집대성한 것은 주자이며, 여러 학자들을 집대성한 것은 송자이다라는 권상하의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지론이다"94)라고 하였다. 또한 요순으로부터 주공에 이르기까지는 도통이고 공자로부터 우암에 이르기까지는 학통이라 장고 공자는 요순과 같고 맹자는 우와 같으며 주자는 주공과 같고 우암은 맹자와 같다고 하였다.95)

이항로가 우암을 공자나 주자에 비긴 것, 또는 우암을 맹자와 같다고 한 것은 그가 단서를 달았듯이 그 사공(事功)을 두고 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이단 배척,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 잡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북벌, 존주대의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평가는 19세기 조선이 또 다시 이러한 사업을 요청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할 것이다. 그의 문하도 이 노선을 따른다.

최익현은 "사칠론, 성정중화설(性情中和說), 인물성동이변에 대해서는 모두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었는데 화서 선생이 모두 심즉리 한 말로 분석하여 동이(同異), 득실(得失)을 그 극치까지 밝혔으며"96) 라고 하였다.

한말에 노론 내부에서 형성된 또 하나의 큰 학단은 전우를 종사로 한다. 전우는 엄정한 사승을 갖고 있다.97) 따라서 그에게서 어떤 창의성 있는 철학적 논

理一也。氣二也。聖人衆人之心。容有不齊者。此兩言。正如論性之有本狀氣質之殊者矣。 然氣之爲物。雖有淸濁粹駁之不同。其本則湛一而已矣。心又氣之精爽。而又合理而言之。則不可專著一氣字。故其本體之湛然則聖人衆人一也。於未發時可見。如何如何"

<sup>93)</sup> 이천승 「도암 이재와 그 문인들의 낙학적 사유」 한국철학논집 64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20년 54쪽

<sup>94) 『</sup>華西雅言』 권10 尊中華

<sup>95) 『</sup>화서집』권14 溪上隨錄

<sup>96) 『</sup>면암집』 권25, 神道碑, 화서(華西) 이 선생(李先生) 신도비명 병서(幷序)

<sup>97)</sup> 전우는 栗谷·尤庵, 그리고 梅山과 全齋의 학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가 속한 학통은 조선조 성리학 계에서 뚜렷한 자기의 주장과 색채를 지니고 있다. 율곡·우암이 퇴계학파에 대해서처럼. 梅山·全齋

점보다는 논적에 대한 치밀한 논리적 대응이 더 두드러진다. 전우에게 뚜렷이 부각된 학문집단과 이론은 이른바 이항로·이진상의 「심즉리설」과 기정진의 「이일분수론(理一分殊論)」 그리고 '인성물성상이' 논변도 정리의 과제였다. 전우는성(性)과 심(心)을 대비하여 '존성(尊性)'을 표방하였다. 그가 창안이라고 자부한 '성사심제(性師心弟)'는 곧 이를 드러내는 명제이다. 전우는 기질의 본체가 맑음을 주장하며, 기를 바로 잡는 노력을 강조한다. 전우는 이일분수와 편전의문제를 구별한다. 몸과 사지백체의 관계는 이일분수와 같고, 반신불수와 전신의온전한 기능은 편전의 관계와 같다고 한다.

이러한 당시 철학부문의 쟁점에서 전우의 철학적 사색의 전개에 가장 비중이 있었던 주제는 역시 인성물성상동에 관한 논변, 즉 포괄적으로 성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입장을 '존성명기(尊性明氣)'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천명을 두려워하고, 인극을 세우는데 있다'고 한다. 전우에게 있어서 성이란 바로 인극이요, 천명이다. 이는 바로 인간이 인간이 되는 근거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에게 있어서의 성은 가치의 궁극적 원천과 표준이다. 성이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을 작게 여기고, 그 성을 낮추며, 인간이 되고자 하니, 그 유폐가 장차 어디에 도달할지를 모르겠다."98)고 염려한다.

전우에게 있어서 性이 존귀하다는 것은 또한 心이 낮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 언급이기도 하다. 그는 '성존심비(性尊心卑)'·'성사심제(性師心弟)'·'성체심(性體 心)' ·'심본성(心本性)'·'심학성(心學性)' 등과 성과 심을 대비하여 성을 높이고 심을 낮추고 있다. 이는 그가 「심시기론(心是氣論)」을 계승한 점과 그리고 논 적들이 '심즉리'를 주장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전우는 성이 존귀한 까닭 과 그리고 심이 성을 높이는 것을 경전의 여러 곳을 인용하여 증명한다.

당시 '심즉리'를 주장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우는 율곡·우암 학통의 계승인답게 '심시기'를 견지한다. 그는 '심즉기'라는 학설은 실제 근세학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 학설의 유래를 정자·소옹·사양좌·주자·황간 등의 견해를 들어 밝히고 있다. 『논어』의 '붙들면 있고 놓으면 달아나는 것'(操存舍亡)이나, '들고 나는 것이 때가 없어 그 터전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심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심은 기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항로처럼 心을 태극이라 하고, 주재자라고 하여 사물에 명을 내리는[命物] 리로 내세우면, 심의 사려를 의리의 바름에 근거시킬 수 없고, 덕성은 그 존귀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전우가 비판한 이유이다. 이는 율곡의 "성현은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氣를 검속하여 그 본연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유학에서 성을 존중하는 도이다."고99) 말한 것과 같다.

'미발심체'에 대해서 전우는 낙론의 관점에서 미발의 심체는 본래 선하다고

의 洛論은 湖論에 대해서 그 입론을 선명히 드러낸다.

<sup>98) 『</sup>艮齋集後編』 刊15 雜著 海上散筆 二,"人之所以爲人者,以畏天命而立人極也.今也乃小其性下其性,而欲人之爲人也.其流之弊,將何所不至哉"

<sup>99) 『</sup>艮齋集前編』 刊15 雜著 栗尤宗旨 癸卯 "氣必待澄而後明, 則氣之當治的矣. 心必待操而後存, 則心之非理明矣. 此栗翁所謂聖賢只要人撿束其氣而使復其本然者. 所以爲儒門尊性之道也"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로서 그는 이전 학자들보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다. 이는 바로 그가 '기질본체는 하나이며, 맑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동일함을 말하고, 맑다는 것은 바로 선함을 의미한다. 전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양오행의 그 시초에 있어서 어찌 바르지 않으랴? 다만 어지러이 오고감에 비로소 바르지 않음이 생긴다. 사물은 오래되면 저절로 폐단이생긴다. 늦은 밤 휴식을 취하면, 그 기가 맑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기질본체가청수하다는 중험이다."100) 전우는 그의 이러한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난이 분분했던 제반 문제들이101) 깨닫지 못한 사이에 확연히풀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항로와 전우가 같은 노론진영에서의 호락논쟁에 대한 평가였다면 통치자와 남인학자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은 다르다. 통치자 정조는 당시의 호락논변이 이미 당론화되었음을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한쪽을 편들고 한쪽을 억눌러 가며 억지 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굳이 밝히고자 한다면 맹자, 정자, 주자의 설을 유별(類別)로 모아 서로 다른 듯한 곳에서 반드시 실제로는 같은 근본 원인을 궁구해 보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이(理)에 속하고 기(氣)에 속하고 이와 기를 겸 하는 데 속하는 것이 제각기 귀결됨이 있을 것이다. 102)라고 하였다. 성리학에 상 당한 식견이 있는 정조도 이것이 이미 당론으로 공박이 오가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고 쟁론 당사자 이외의 주변인의 시각이 어떤 지를 암시하고 있다.

이익의 문하에 있던 윤기(尹愭 1741-1826)103)는 「호락심성변후에 쓰다[書湖洛心性辨後]」 라는 글을 통하여 호락논쟁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 다음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재의 문인 최석(崔祏)104)이 쓴 「호학변대요(湖學辨大要)」를 읽고 '눈이 어질어질하고 입이 딱 벌어지다가' 한참 뒤에야 '심성(心性)에 대한 설은 두 마디면 판가름 나는데, 이처럼 많은 말을 할 것이 무어 있는가? 그 내용이 경전 속에 들어 있는데 여러 공(公)이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고는 경서에 나오는 심과 성에 대한 말을 아래에 기록해 두니, 이를 읽는 사람은 저절로 알 것이다."105) 하였다. 앞서 정조가 호락논변 종식 방안으로 제시한 것을 윤기가 수행한 것과 같다.

윤기는 또 호락의 논쟁에 대하여 이황의 말을 인용하여 비판한다. 퇴계는 세상

<sup>100) 『</sup>艮齋集後編』 刊14 雜著 氣質體清 示金鍾熙,權純命,柳永善,癸丑 "二氣五行,始何嘗不正? 只袞來袞去更有不正. 蓋物久自有弊壞. 秦漢而下較混濁,不如太古之淸明純粹,然其本然亦不壞.……所以暮夜休息,則其氣復淸明矣"

<sup>101)</sup> 즉 人性物性同異의 문제, 聖人凡人의 未發時 善惡의 有無 문제, 사람의 出生時의 氣質의 一定하기 어려움의 문제 등 代代로 解消되지 않고, 論破하기 어려운 문제 等等.

<sup>102) 『</sup>홍재전서』 권120, 鄒書春記 1 閣臣 金近淳 告子篇, 告子章, 生之謂性章, "故曰近所謂人物之性同異. 不必扶抑強解. 必也類聚孟子程子朱子之說. 於其似異處. 必究其實同之源委. 則屬理屬氣屬於兼理氣. 各有歸宿. 不但爲今日之息訟. 將又爲告子之訟寃. 而告子必聽命. 千載之後. 不亦便好之甚耶"

<sup>103)</sup> 윤기(尹愭) 자는 敬夫, 호는 無名子 본관 坡平 李瀷을 사사하였다. 저서로 『無名子集』 20권 20책이 있다.

<sup>104)</sup> 최석(崔祏, ?~?) : 자는 叔固이다. 陶菴 李縡의 문인이다.

<sup>105)</sup> 윤기 『무명자집』 제5책 書湖洛心性辨後

에서 훌륭하다는 목수가 지나다가 장인이 잘 지은 집을 보고는 자신이 손댄 곳이 하나도 없음을 수치로 여겨, 팔뚝을 걷어붙이고 전에 뛰어난 장인이 보수한 곳을 헐어낸 다음 몸채를 뜯어내어 그 헐린 곳을 보수한다면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될 것이다. 106)라고 한 일이 있는데, 윤기는 퇴계의 말은 성리학을 논하는 사람들, 호락논쟁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여겼다. 107).

이진상은 "호락설은 하나를 붙잡아 둘을 놓친 것[執一廢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호설은 다름에 치우쳤고 낙설은 같음에 치우쳤으니 모두 근거로 삼을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108) 그는 다시 "근래의 호락의 다툼을 보니 쓸데없이 정신을 낭비하고 있고 말은 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병폐는 煩密에 있고 밖으로부터 근심을 만난 것이니 예학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109) 그는 "미발 전의기질성에 대한 다툼이 호락의 나뉨의 관건이다. 내 생각에는 兩說이 각각 치우쳤다. 서로 갖추어야 한다. 이제 각각 한쪽 치우친 것에 근거하여 서로 공격하고 있는데 바로 이른바 쓸데없는 경쟁[閒爭競]일 따름이다. 그러나 심의 미발은 기질이 전혀 작용하지 못한다. 혼연한 일리일 따름이다. 이제 기질지성을 논하지말아야 한다.110)고 하였다. 이는 그의 심즉리의 전제적 관점을 바탕에 둔 비판이다.

곽종석은 미발 이전의 기질지성에 대한 주장이 호락론이 크게 갈라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에 대한 낙론 호론의 주장을 모두 정리한 다음 양측의 주장이 각각 세워지면 모두 치우친 것이요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 갖추지 못한 것이니두 설을 갖추어 보아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111) 그는 인물성론에서는 굳이 말

<sup>106) 『</sup>耳계집』 권11,書,答李仲久 "諸儒徒見此數節有知止知先後知本等語 謂可以移之以爲格致之傳 更不思數節之文頓無格致之意 其可乎哉 今有巨室於此 正寢無闕 而廊廡有缺 大匠見之 作而補修 小無可疑 其後有世所謂良工者過而相之 恥己之一無措手也 於是攘臂其間 壞其所補 掇取正寢 補其所壞 非徒無益 而又害之也"

<sup>107)</sup> 윤기 『무명자집』 제5책, 호락논쟁에 대한 총론[又總論于後]

<sup>108)</sup> 이진상 『寒洲集』 전5 書,上柳定齋先生"尋數之業.亦且擔閣.伏悶何達.別紙仰質.俯賜條答伏望.別紙 論性條.湖洛說執一廢二.下教至當.但鄙說則曰.有性則同.爲性則異.所以集湖洛之長.性之同.卽理而同也.性之異.因氣而異也.異雖因氣.異底實理.亦朱子理絶不同之意也.中庸二十一章章句曰.人物之性.卽我之性者.有性之同也.曰但以形氣不同而有異者.爲性之異也.不同者.氣之異也.有異者.性之異也.自其有異處看則人物之性.果可謂我之性乎.首章言性主乎同.而同中有異.人與物之性.固皆健順五常.而人之五常全.物之五常偏.故章句明說性道同.以明正義之主同.而理曰各得.性曰各循.道曰各有.三各字.可見其異在其中.由此言之.湖說偏於異.洛說偏於同.而皆未足爲據也"

<sup>109)</sup> 이진상 『寒洲集』 권9 書, 答李謹休 乙丑 "三十以前. 躐求性道. 談空說妙. 病在高遠. 伊後十許年. 刻意論著. 箚疑四子. 以及周, 程, 朱, 李之書. 又嘗辨駁整菴以下異趨之論. 迄于近世湖洛之爭. 枉費精神. 言非德出. 病在煩密. 自遭外憂. 留心禮學. "

<sup>110) 『</sup>寒洲集』 刊10 書,答姜耘父"南塘云未發之前.亦有氣質之性.三淵言其非.止 塘說非無据."未發前氣質性之爭.乃湖洛分界大關.以愚觀之.兩說各有所偏.而相須乃備.蓋衆人之心.昏昧雜擾.雖有霎時之靜.大本不立.便未可謂真箇未發.其能有箇未發者.氣質亦自純善.而不容言善惡不齊之性.此乃以未發之極功言.洛說之旨也.若但指喜怒哀樂之不形處而謂之未發.則氣質之淸濁粹駁.都在這裏.爲發後淑慝之種子.此乃氣質之性.而湖說之旨也.兩說俱有所本.延平曰人固有無所喜怒之時.謂之未發則不可.朱子曰廝役亦有未發.所就而言者自不同.今各據一偏.而互相攻辨者.正所謂閒爭競也.然心之未發.氣質都不用事.渾然一理而已.此際不須論氣質之性"

<sup>111) 『</sup>俛宇集』 전16 書 答許后山"未發前氣質性之說.是湖洛論大分界處.盖衆人之心膠撓昏耗.雖有少靜時節.不是眞箇未發.若能眞箇未發則於此不可以言善惡不齊之性.此則洛說之旨.而以未發之極功言之也.但指其喜怒哀樂不形時節則淸濁粹駁都在這裏.而爲發後淑慝之種子.此則湖說之旨.而以喜怒

하지면 호론이 낙론보다 잘못이 덜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를 보고 이를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한 소굴에 떨어지는 것이니 어떤지 모르겠다.112)라고 하여 심즉리를 주장하는 이진상의 입장을 고수한다. 그는 이항로의 심설을 크게 찬동하고 유중교가 지은 심설이 스승에게 크게 어긋났는데 이는 호락에서 전해오는 잘못에 빠져든 탓이라고 하였다.113)

홍대용은 집안 아우 대응의 '호락파의 성론에 대한 잘잘못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답하기를 "호락파는 모두 주자가 논한 바 성론에 의거하여, 각각 학설을 세운 것인데, 주자의 설도 그 초년기와 만년기의 설이 다르고 『어류』에 수록된 것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니 이것이 논쟁의 발단이 되어 그간에 잘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대개 볼 때 큰 사유가 되는 것은 모두가 한결같이 논쟁하여 이기는 데만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니, 너무 지나친 일이라 하겠다."114) 이는 노론 실학파의 관점을 보여준다.

노론 출신 박성양(朴性陽 1809-1890)은 「호락원류」에서 스승 이지수115)가 호락의 제현은 모두 정주학을 종지로 하고 율우의 법문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후학들이 호락 제현에 대하여 치우쳐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지 말고 망령되어 서로비난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지언(知言)"이라고 하였다. 그는 참으로 학문에 종사하려면 쟁점을 잠간 내려놓고 호락 제현의 격언과 의로운 행실을 갖고준행하고 이어받아 힘써 실천해야 하며 힘쓰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16) 박성양은 인(仁)자는 인으로 지(智)자는 지로 본다고 하듯이 같은 자료를 두고서도 그 혹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문호가 원래 각각 서지 않았으니 참으로 병행(並行)불패(不悖)라고 하고 어지러운 듯 해도 같은 곳으로 귀결되는 것인 들어가는 자 주인으로 삼고 나가는 지 노예로 삼는 것이 없으며, 를 하나는 억압하고 하나는 찬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117)고 하였다. 그가 「총목」 한편을

之不形處言之也.兩說各立則俱偏而相須則不備.鄙意則盖欲兼兩說而觀之耳.非以氣質之性專歸於未發而更不干些子兒已發境界矣"

<sup>112) 『</sup>俛宇集』 刊81,書,答李善載 癸丑 "所謂人物性同者.此大築言同得天地之理而無不善也.非謂其本性之全體分數.都無彼此也.湖洛言性.盖互有齊楚之得失.而洛比湖差覺少長.然其爲見氣而不見理則恐終歸於一窠也.未知如何"

<sup>113) 『</sup>俛宇集』 刊141 跋,書洪思伯 在龜 心說後 辛卯 "余甞得華西雅言.見其論心諸說.備盡本末.而斷之以邵朱心爲太極之訓.便歡然傾倒.以爲數百年來心訣始端.斯文將大定于一.而後學得不貳於趨向矣. 旣又得觀省齋柳氏所著心說.一切背其師旨.而反尋湖洛相傳之謬.以形而下者爲心之正名.復愕然興嘆.以爲七十子猶未喪而大義已乖矣.一傳而戈入於室.豈華西之學.根本有未固耶.益覺氣機之陷人忒甚.而理義之難明有如是也"

<sup>114) 『</sup>日헌집』 외집 부록,從兄湛軒先生遺事,從父弟大應"小弟問湖洛論性之得失.先生曰.此非初學淺見所可得聞.大抵湖洛.皆據朱子所論以爲說.而朱子說有初晚之別.語類所錄.人各不同.此所以爲爭端.其間不無得失.而看作大事.一向務勝.不已則太過.退,栗,尤翁諸賢性理之說.曾無若是爭辨.而不害爲退,栗,尤翁.後之學者所當戒也"

<sup>115)</sup> 李趾秀(1779-1842)는 자는 季麟, 호는 重山齋. 저서로는 『重山齋集』 8권이 있다.

<sup>116)</sup> 박성양 『芸窓文集』 권10 序, 湖洛源流總目序 丁卯 "記昔辛丑冬. 余侍重山齋李公. 問近世湖洛之論. 各尊所聞. 齗齗不已. 果如朱陸之有邪正. 不可以相容否. 公答曰. 湖洛諸賢. 雖以心性理氣之說. 意見相戾. 而原其平生大體. 俱宗程朱之學. 俱遵栗尤之法門者也. 二程門下. 如楊龜山, 謝上蔡, 游廣平諸公. 畧有論議之參差. 而不害爲程門高弟. 後學之於湖洛先輩. 不宜偏守己見. 妄相譏詆. 重山此言. 誠知言也... 愚甞謂吾黨之士. 苟欲從事學問. 則人物聖凡之同與不同. 姑且倚閣一邊. 第以湖洛諸賢之格言懿行. 遵述而力踐之. 勉焉孜孜. 盈科而進"

지었는데 논변에 참여한 학자의 호, 이름, 자, 출신, 문하, 생졸년, 관직, 시호, 행장 등을 기록하였는데 모두 21명이다.

회당 장석영(張錫英 1851-1926)118)의 그의 「호락설변(湖洛說辨)」에서 "호 락의 당 안에는 지켜 이기려는 저주가 없지 않고 함께 목욕하여 벌거벗은 것을 드러냄이 없지 않은데 의리의 변론은 군자의 다툼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그는 두 주장에 곡절이 매우 많지만 큰 것을 들어 말하면 그 항목이 여섯이 라 하였다. 그는 이미 알려진 세 가지에다가 '마음은 기이다', '처명의 성 일구는 둘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권상하의 주장으로 호론에서 종지로 삼는 것, '충막 무짐은 다만 고요한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다'의 세 가지를 더 꼽았다. 새로운 것 이 아니라 기존의 논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세분한 것이다. 그는 모든 주장을 통 하여 보니 각각 지극히 고증을 하였으며 각각 나름의 정밀한 의리가 있고, 각자 주자의 주장에 회통하고 있다고 한다. 또 사람들의 소견이 다 같을 수는 없고 그 사이에 출입이 없을 수 없지만 맥을 살려서 보면 모두 통할 수 있는 주장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다만 심을 기라고 하는 것은 대본이 이미 어긋났기 에 그 말류의 폐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뒤늦게 태어나 외암 한원진의 주장 을 참여하여듣고 그 의심나는 바를 묻지 못함이 한이 된다".119)라고 하였다. 쟁 점 여섯가지에서 그는 '심시기'를 첫머리에 두고 그것을 대본으로 여기며 그 시 비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한기(崔漢綺 1803-1877)는 『추측록』에서 사물의 이동(異同)을 분변하는 해악을 논했다. 그는 "이단의 해악은 그 종지(宗旨)에 뿌리가 있고, 유자의해는 편당을 비호하는 데서 일어난다"고 하고 주륙의 존덕성(尊德性)·도문학(道文學)이나 호락(湖洛)의 이동(理同)·기이(氣異) 등은 각각 함께 통합하여야지분당(分黨)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류의 폐단이 각기 문호를 지키어 다른 것을 공박하고 당을 엄호하여 의탁할 근거와 학문한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으니, 어느 겨를에 전체(全體)대용(大用)과 중정(中正)자수(自修)를 논할 수 있겠는가"120)

<sup>117)</sup> 박성양 『芸窓文集』 刊10 序, 湖洛源流總目序 丁卯 "窃欲詳細蒐輯. 名之以湖洛源流. 且其心性理 氣之辨. 不用一毫私意. 節取肯綮要語. 各自編入. 則取舍從違. 惟在於覽者之如何而已. 山居僻陋. 書籍 難求. 積年商量. 訖未之果. 姑以總目一通. 列錄于左. 未知何人果能成此書也否...而至於此書體裁. 據實直書. 無所偏倚. 仁智雖或異見. 門戶元不各立. 眞可謂并行不悖. 爛漫同歸矣. 世之具眼者. 幸加三思. 無或入主出奴. 一抑而一揚也".

<sup>118)</sup> 장석영의 다른 이름은 碩敎. 호는 晦堂. 1907년 칠곡지방의 국채보상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곽종석·金昌淑 등과 협의하여 파리평화회의에 제출할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였으며, 4월 2일 성주 장날의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저서로는 『회당집』·『遼左紀行文』이 있다.

<sup>119) 『</sup>晦堂文集』 刊22,雜著 湖洛說辨 "我東自分黨以來.風氣有異.論說不齊.要之春秋之無義戰也.惟湖洛之黨.名義最正.其中不得無守勝之詛盟同浴之裸裎.而義理之辨.不害爲君子之爭也.愚嘗竊取而讀之.兩下參攷.折衷其同異而辨之如右.大抵其說曲折甚多.而攝其大者而言之.其目有六.其一曰心即氣也...其一曰人物性同異也....其一曰未發時氣質性有無也...其一曰天命之謂性一句.分作兩截.天命作本然性.性字作氣質性也...其一曰浩然之氣.賢愚之所稟不同也...其一曰冲漠無眹.只可於靜上言也... 通按諸說.各極考據.各有精義.各自會通於朱子之說.而人之所見.不能皆同.不得無出入於其間.然活絡以看則皆似有可通之說矣.但其認心爲氣.大本已差.而末流之弊.有不可勝言者矣...只恨生世之晚.不得參聽乎巍塘之論而一質其所疑也.

<sup>120)</sup> 최한기 『추측록』 권6, 辨異同之害"異端之害. 根於宗旨. 儒者之害. 起於護黨.. <u>若夫朱陸之德性</u>

라고 하였다.

Ⅵ. 나는 말 - 율 우의 정심(精審)한 이론과 전일(專一)한 실천의 지향

기호지역 학문의 종사로 율곡·우계 사계 우암 화서 간재를 꼽을 수 있다. 16세기는 율곡의 이기론이, 17세기는 김장생의 예학과 우암의 의리가 학계를 주도했다면 18세기는 호락논쟁이 19세기는 이항로의 위정척사와 전우의 학단이 기호학계를 주도하였다. 호락논쟁도 위정척사도 모두 율우벽립, 그 종지를 중심으로활동을 펼쳐 나아갔다. 17세기의 우암은 그의 대의구현에서 김상헌과 적극 협력하였다.

호락논쟁의 출발은 한원진이지만 소급하면 김창협과 권상하가 드러난다. 이 둘은 우암 문하에서 충청권과 서울권, 그리고 당국자와 산림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둘 다 대의구현을 중시하는 학자이다. 한원진이 권상하의 문하가 되면서 우암 유지를 수행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의 학문적 탁월성과 문하의 지도력은 이론 수립과정에서 드러나 충청권 노론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찬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원진의 활동에 논적으로 나타난 이간과 그의 이론에 찬동하는 김창협을 영수로 석실서원을 근거로 하는 학인들이 나서서 논전을 펴는 것은 바람직한 학문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창협 중심의 낙론파는 서울의 우월한 문화와 정보와경제여건 속에서 국제정세에 밝았는데 우선 청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청은 대륙에서 정치적 안정을 보이며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창출하고 있음이 연행사들에 의하여 전해졌기 때문이다. '인통함원박부득이'의 8글자정신은 더 이상 현실속에서 유효성을 갖기 어려웠다. 그곳을 통하여 유입되는 서학의 내용도 막무가내로 반발하고 차단하는 것이 지식인들에게 타당성을 잃어갔다. 우암의 대의에는 변통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이들에게 나타났고 적극적으로청조와의 문물교류, 북학론까지 등장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조정에서 왕이 주도하는 탕평책 등에서 남인과 소론 등 정적들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노론 정권 아래에서 비주류가 되어있는 호론은 준론으로 불리는 원칙론 내지는 순수정통론의 입장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들의 시각에 서울에 있는 당국자로서의 낙론은 현실적응주의자 수정론자로 비쳤다. 이들에 대하여 한원진의 '삼무분설(三無分說)'의 비판이 주어졌다. 이 비판은 낙론자들에게는 매우 아프게파고드는 비수였고 그만큼 호론은 배척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율곡과 우암은 가장 경계한 것이 유속(流俗)이고 와언(訛言)이었는데 충청권의 비주류 호론의입장에서 볼 때 서울의 노론은 이미 유속화되었고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말을바꾸고 구실을 대는 와언의 무리로 변질되고 있었다.

問學. 湖洛之理同氣異. 俱宜統合. 不宜分黨. 而末流之弊. 各守門戶. 伐異護黨. 以作歸託之所. 學問之 名. 何暇論全體大用. 中正自修哉.

후학들에게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은 포기 또는 폐기할 수 없는 정론(定論)이요 종지(宗旨)였다. 미발심체의 문제에 있어 호론은 이에 입각하여 가능한 전거를 총동원하면서 견지했다. 이 논쟁은 순수한 학술논쟁이며 주희의 발언 가운데 무엇을 전거로 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였지만 전체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학술에 있어서의 정통성 주도권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주변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 문제로 이기기를 좋아하는 데서 나온 말장난 내지 헛심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미 당론으로 굳어져 버린 당동벌이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김용겸은 도학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말꼬리만을 흉내 내어 빚어진 일'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김창협의 조카였다. 이는 낙론의 학자들이 다소 논점 회피적 평가를 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학술논쟁은 본질적으로 언어놀이의 성격을 지니며, 세력의 강약을 나타내거나 때로는 진영의 승리를 위한 과도한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논리적 정합성의 추구가 후학들에게는 상호 용납불가의 전투로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피상적 인상을 넘어 개인 하나하나의 사색의 과정을 따라가면 참으로 이른바철학함의 본보기적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선현의 깊이 있는 사색의 길을 따라 가보려고 애쓰는 것, 논리적 난관이나 지향의 장애가 있을 때 이를 돌파하려는 모색 등에서 그러하다. 선유들의 학문에서 각자의 지향을 갖고 미묘한 차이에 크게눈을 뜨고 이론을 구축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서에서 편견을 없앨 것을 강조하지만 후대에 이루어진 학인들의 선유의 글읽기는 이해보다는 각자 자신이 믿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것, 결국 남을 이기는 것에 주안을 두는 것을 버리지 못함이 많았던 것 같다.

철학은 신념의 싸움이다. 그들의 논쟁도 여러 가지 논거나 수사 등이 동원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향과 신념의 싸움이다. 철학적 논쟁에서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 양 당사자 간의 수궁이나 패배의 인정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아호의 논쟁에서 결국 너는 너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간다고 선언하고 마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호락의 쟁론도 그러하다. 양상은 전거의 싸움이고 진영의 싸움으로 전개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시대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 내지 승복이 잘 되지 않는다.

합의나 승복이 없는 논쟁이라 해서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철학적 논쟁이 본질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논거의 동원에서 치밀한 논리의 구성에서 개념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설득을 위한 수사의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현실사회에서 구현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호락논쟁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인 부분은 율곡 우옹에 대한 존신의 념이다. 그들에게서 이 둘의 학문적 신념과 위상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율곡은 49세 정월에 병사하였지만 전 해인 1583년 1년 내내 혹독한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 우옹 역시 정적들의 정치적 탄핵으로 말년에는 덕원

장기 거제 제주 등 유배지를 전전하였으며 83세에 후명(後命)으로 죽었다. 그들의 지향과 삶이 매우 극적이다. 이들의 후학들에게는 또 다른 맥락의 '인통함원박부득이의'의 절실함이 있었다. 결국 김창협 권상하로 대표되는 우암 문하의 두대표집단은 학문과 문화에 있어서 같은 근원 다른 흐름, 같은 뿌리 다른 꽃의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뿌리와 원천을 공유했기에 어느 정도서로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었고, 진단과 처방이 달랐기에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유지해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논쟁이 길게 이어진 것도 이런 기반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기호유학은 율곡학과 우암학이고 그것은 이기철학과 대의구현을 특색으로 한다. 호락논쟁은 인수구분과 유석구별과 화이구분의 전통적 윤리문명의 지수와 당대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양해보고자 하는 변통의 노력과의 충돌적 협력이 이론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견고한 동일 기반 위에 있었기에 그 다툼은 극단적 배제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를 주변에서는 쓸데없는 힘 낭비 또는 이기려는 욕망의 나타남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이론은 엄밀했고 그들의 실천은 엄숙했다. 아니 유정(惟精)의 정심(精審)함과 유일(惟一)의 전일(專一)함이 있었다. 이것이 율곡과 우암의 학문적 특질이고 기호유학의 일관된 지향이며 도학의 핵심이었다.